

전략연구 2014-13

# 충남의 지역공동체와 행복

- 충남의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

이수철·고승희·최병학



# 발 간 사

이제 한 사회의 발전은 경제적 수준뿐만 아니라, 자유삶의 질 등 행복 등 기존에는 다소 유보되었던 개념에 대한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그 중 사회 구성원의 행복은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으로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아직 주류는 아니지만 국내외의 많은 연구가 행복을 발전에 수준으로 삼고 이를 주요한 정책적 지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한국사회 전체보다, 지방정부와 지역차원에서 보다 선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충남의 경우 그 대표적 사례이다. 충남은 행복을 도정의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도민의 행복을 위해 많은 정책적 실천을 하고 있다.

이에 보조를 맞추어 충남발전연구원의 경우에는 2012년에는 충남의 행복지표의 측정 틀을 정립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를 이어 2013년 정립된 충남 행복지표 측정틀에 의해 도민의 행복지표를 측정하고 도민의 행복에 대한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도민의 행복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하였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연구는 아직 초보 단계여서 기대와는 달리 행복지표의 정책적 활용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이러한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부가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속 이 연구는 지난 2년의 연구 성과에서 규명한 행복을 구성하는 9개의 영역 중 공동체 부분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이는 보다 심도 있는 정책적 반영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연구가 충남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행복에 대한 연구를 시작함에 있어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충남도정의 행복정책에 기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 좋지 않은 연구환경에서도 본 연구 수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이수철 박사, 고승희 박사, 최병학 박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본 연구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자문과 조언을 해주신 자문위원님과 충남도 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8월 31일

충남발전연구원장 강 현 수



# 연구 요약

이제 한 사회의 발전은 경제적 수준뿐만 아니라, 자유삶의 질 등 행복 등 기존에는 다소 유보되었던 개념에 대한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그 중 사회 구성원의 행복은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으로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아직 주류는 아니지만 국내외의 많은 연구가 행복을 발전에 수준으로 삼고 이를 주요한 정책적 지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한국사회 전체보다, 지방정부와 지역차원에서 보다 선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충남의 경우 그 대표적 사례이다. 충남은 행복을 도정의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도민의 행복을 위해 많은 정책적 실천을 하고 있다.

이에 보조를 맞추어 충남발전연구원의 경우에는 2012년에는 충남의 행복지표의 측정 틀을 정립하는 연구를 시도하여, 행복에 대한 정의 행복에 대한 정의, 행복지표를 구성하는 영역과 영역별 지표의 선정, 충남 행복지표 설정에 있어서의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 영역별 도민의 만족도 및 영역별 객관적 세부지표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 등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편 2013년 정립된 충남 행복지표 측정틀에 의해 도민의 행복지표를 측정하고 도민의 행복에 대한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도민의 행복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아직 초보 단계여서 기대와는 달리 행복지표의 정책적 활용은 그리 활발하지 못한다. 따라서 보다 실질적인 정책적 활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결과의 축적이 필요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행복측정이 보다 정밀하고 활발히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행복의 실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실현을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 축적이 필요하고, 다양한 단위에서 측정을 통해 우리 삶의 영역에서 실질적 행복증진의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속 기존에 의 연구에서 규명한 행복을 구성하는 9개의 영역 중 공동체 부분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지난 2년간의 행복연구의 결과를 분석하여 행복과 공동체의 관계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설정하였다. 그리고 공동체와 행복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기존의 공동체 연구와 공동체의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개념으로 알려진 사회자본과의 관계를 재정립

하였다. 이렇게 재정립한 사회자본을 속성을 통해 충남의 공동체와 도민들의 주관적 행복도의 상호관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양적인 지표로 밝힐 수 없는 내용은 마을주민들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난 2년간의 행복연구를 통해서 보면 가족 및 공동체 영역의 행복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것은 아마도 가족과 공동체가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토대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가족과 공동체는 행복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이고, 분리될 수 없는 요소일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행복을 구성하는 공동체 영역의 핵심 지표의 많은 부분은 학계에서 논의되는 사회자본의 개념과 일치한다.

현대사회에서 공동체의 개념은 전통적인 그것과 매우 다르다. 오늘날의 공동체는 제도를 통해 지원되고 전통적인 유대와 현대적인 연대가 조화된 것으로 개념화해야 하는데, 이러한 공동체의 핵심원리는 사회적 연대이고 연대를 구성하는 원인이자 결과인 '사회자본'이 가장 핵심적인 원리라 할 수 있다.

한편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는 많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신뢰, 네트워크, 규범, 호혜성과 이 구성요소의 형성을 촉진하는 참여라는 하위요소로서 이루어져 있다고 개념화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는 사회자본을 객관적 지표로 측정하는 지표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구성된 사회자본의 지표를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하였다. 충남의 다른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는 낮은 편이다. 전적으로 믿을 만한 비율이 응답은 20%이하로 나타났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의견이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이와 특정집단에 대한 신뢰를 물어 보았을 때, 이웃, 직장동료, 지역공동체에 대한 신뢰는 높은 반면 공무원 및 정치에 대한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지난 1년간 선거에 참여한 비율은 60%대로 전국의 평균을 약간 상회하고 있다. 지역 사회의 정치적 문제에 대한 참여는 매우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의 활동에의 참여는 개인 차원의 활동은 비교적 높으나, 전국적 차원의 단체 활동은 비교적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전반적으로 사회의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민은 가족, 동네, 지역, 충남도, 한국에 소속감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규범을 나타내는 공공법규의 준수와 부정부패의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가족과 지역사회의 호혜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행복감, 긍정적 감정을 느끼는 정도, 미래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사회자본, 주관적 행복감과의 상관성을 분석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제3의 자본이라고 불리는 사회자본을 6가지 하위차원으로 구분하여 이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찾아내기 위해 사회인구학적인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신뢰의 영향을 주는 요인은 경제적 요인인 월소득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경제적 요인의 월소득은 사회자본의 모든 하위 차원의 영역(신뢰를 포함하여 소속감, 규범, 호혜성, 참여, 네트워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밖에 연령 요인은 사회자본 중 규범과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자신이 속한 집단이 규범을 잘 지키는 것으로 인지하고, 자신이 사회적 참여에 적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직업과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신이 속한 집단에 소속감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혼인을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사회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가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분석은 충남의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충남은 북부권을 중심으로 급격한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이동이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사회관계의 방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연줄망보다는 돈을 매개로 하는 경제적 관계가 가장 중요한 사회관계의 매개요인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충남의 전통적인 사회관계가 산업화되고 도시화된 사회의 새로운 사회관계, 즉 뒤르케임이 이야기 하는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유기적 연대의 관계로 완전히 변화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령, 혼인 여부와 같이 전통적이 관계에 기반한 요인이 미미하지만 사회자본의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된 것으로 보아 충남은 전통적인 사회적 관계가 아직도 사회자본의 형성에 의미 있는 요소로 남아있기도 하다.

따라서 충남은 산업화되고 도시화된 사회관계의 대표적인 지표인 경제적 요인이 중요이기는 하지만 전통적 사회관계가 사회자본의 형성에 의미 있는 요소로 남아 있는 과도기적인

사회로 보인다. 이러한 과도기적인 상태의 충남에서는 사회발전과 사회적 관계 형성의 중요한 기제인 사회자본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사회관계의 장점과 다양성이 증대된 사회관계의 장점을 모두 잘 살릴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다른 측면으로 바라보면 색다른 추론이 가능하다. 경제적 자본을 많이 소유한 사람일수록 사회자본의 풍부하다는 것을 분석의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이는 경제적 자본을 소유한 사람이 사회적 자본까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불평등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일수록 사회자본이 낮은 이중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은 사회자본에서의 소외를 초래하고 이는 다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환원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주관적 행복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아내기 위해 사회인구학적인 변수(모델 2),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사회자본을 독립변수로 하는 분석(모델 3)을 실시하였다. 사회인구학적인 변수 중에 주관적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있는 변수는 경제적 요인(월소득)이었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충남도민의 주관적 행복도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사회자본을 독립변수로 주관적 행복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경제적 요인(월소득)과 사회자본의 6개 하위 요소 중, 신뢰를 제외한 소속감, 규범, 호혜성, 참여, 네트워크 등 5개 변인이 주관적 행복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신뢰는 경제적 요인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보이고 있어 최종분석에서는 그 효과가 사라진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경제적 요인이 설명력이 높은 지표이기 때문에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충남의 경우 전반적으로 사회자본의 축적이 낮고, 경제적 불평등이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사회자본의 축적이 낮고, 이는 주관적 행복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객관적 지표로 다 읽어 낼 수 없는 충남의 사회자본과 행복의 문제를 추론하기 위해 마을조사를 실시하였다. 충남의 농촌지역인 홍성의 마을 조사 결과를 보면 젊은 층의 이농과 고령화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경제적 빈곤상태에 놓여 있고, 이러한 빈곤은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쳐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 인한 외로움과 고립 상태에 빠져 있다. 그리고 경제적 빈곤은

건강의 문제에도 영향을 미쳐서 질병을 제 때 치료하지 못해 건강을 악화시키고, 이는 다시 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

태안지역의 마을조사에서 드러난 것은, 태안 유류유출 사고의 수습 특히 보상과정에서의 혼란으로 마을 주민들 상호간 갈등이 심화 되었고, 그러한 갈등 상황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태안 유류유출 사고의 수습과정에서의 혼선과 정책의 부재는 주민들 상호간, 공공 부문, 전문가 집단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고, 이러한 하락은 체제를 정비하고 장기적인 소통과정이 없으면 회복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정책적 제안을 다음과 같다.

#### 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 복지정책의 수립과 시행

경제적 빈곤을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복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차원의 복지정책은 재정적 어려움 등의 문제로 인해 중앙정부의 사회보장 급여의 조사와 시행, 그리고 중앙정부 매칭의 사회서비스 시행의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빈곤의 여러 가지 빈곤요인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것이 많고, 그것이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재정적으로 부족한 경우라도 지역적 자원(정책적 자원과 민간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사용하는 지역사회복지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계획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단순히 수행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능동적 복지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 ② 사회자본의 증진을 위한 융합적 정책의 시행

충남에서는 도민들의 사회자본의 증진과 지역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 많은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것을 확대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시민사회의 역량 증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 정책,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사랑 행복마을’ 정책, ‘희망마을 만들기’ 정책 등이다.

이러한 것들은 개별적으로는 매우 훌륭한 정책적 실험으로 보여 지지만, 예산의 문제 등으로 충남의 전역으로 확산되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서로의 강점을 살려 다른 정책들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면, 그 시너지 효과로 인해 개별적인 정책도 살고 전체적으로는 충남의 사회자본을 축적해서 도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정책의 측면에서 개별정책의 효과만을 생각하지 말고, 충남의 전체적 차원에서 효과성을 고려하여 정책적 자원을 배분하고 상호 협력한다면 더 큰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목 차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의 절차 및 주요 내용 .....	4
제2장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의 분석틀 설정 .....	6
1. 공동체와 행복의 관계 설정 .....	6
2. 공동체와 사회자본 .....	17
3. 연구의 분석틀 .....	31
제3장 충남의 사회자본과 행복 관련성 측정 .....	32
1. 충남의 사회자본과 행복의 객관적 측정 .....	32
2. 사회자본과 행복도의 상호 영향 분석 .....	42
3. 사회자본과 행복의 상호 영향 분석의 의미 .....	49
제4장 지역의 사회자본 변동에 대한 마을 조사 .....	54
1. 충청남도 농촌지역 현지 조사-홍성 3개 마을 .....	54
2. 충청남도 어촌지역 현지 조사-태안 .....	60
3. 충청남도 마을 현지 조사의 의미 .....	64
제5장 결론 .....	66
1. 내용요약 .....	66
2. 연구의 함의 .....	70
참고문헌 .....	74
부    록 .....	79

# 표 목 차

[표 2-1] 일본의 생활개혁지수 중 가족과 공동체 관련 지표(2004년) .....	8
[표 2-2] 연령/생애단계별 잠재적 시간이용 지표 및 웰빙과의 연관성 .....	9
[표 2-3] 공동체 활력 영역의 지표들 .....	10
[표 2-4] 공동체 활력 영역의 지표들 .....	11
[표 2-5] 공동체와 사회 .....	19
[표 2-6] 공동체 개념화 유형 .....	20
[표 2-7] 사회자본과 다른 자본과의 차이 .....	21
[표 2-8] 사회자본 개념의 논쟁점 .....	22
[표 3-1] 변수의 설정 .....	32
[표 3-2] 응답자 특성 .....	33
[표 3-3] 타인에 대한 믿음 .....	34
[표 3-4] 특정 집단에 대한 신뢰도 .....	35
[표 3-5] 최근 투표 참여 여부 .....	36
[표 3-6] 지역적 사회활동 참여 여부 .....	36
[표 3-7] 단체활동 참여 여부 .....	37
[표 3-8] 마을회의 참여 여부 .....	38
[표 3-9]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 .....	38
[표 3-10] 지난 1년간 지역적 친목활동 참여 여부 .....	39
[표 3-11] 지역에 대한 중요성 인식 .....	40
[표 3-12] 공공법규 준수 및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 .....	40
[표 3-13]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 .....	41
[표 3-14] 삶의 만족도와 행복에 대한 기대 .....	41
[표 3-15] 인구학적 변수와 신뢰의 관계 .....	43

[표 3-16] 인구학적 변수와 소속감의 관계 .....	44
[표 3-17] 인구학적 변수와 규범의 관계 .....	44
[표 3-18] 인구학적 변수와 호혜성과의 관계 .....	45
[표 3-19] 인구학적 변수와 참여와의 관계 .....	46
[표 3-20] 인구학적 변수와 네트워크와의 관계 .....	46
[표 3-21] 인구학적 변수와 행복도의 관계 .....	47
[표 3-22]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종합 .....	48

# 그림 목 차

[그림 1-1] 행복지표 9개 영역과 본 연구의 분석 범위 .....	3
[그림 1-2] 연구의 추진체계 .....	4
[그림 1-3] 연구의 내용 .....	5
[그림 2-1] 분석틀 .....	31
[그림 3-1] 분석 모형 .....	42
[그림 3-2] 사회자본의 순환 모델 .....	49
[그림 3-3]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사회자본의 관계 .....	50
[그림 3-4]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행복도 .....	50
[그림 3-5] 주관적 행복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	51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발전정도는 GNP 증가나 개인소득 증가, 산업화나 기술진보 또는 사회의 근대화로 규정된다. 이러한 기준은 주로 GDP로 대표되는 경제적 가치로 측정되었다. 또한 경제적 가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제도와 환경 등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경제적 수준, 제도와 기반, 환경 등을 중심으로 한 기준은 사회를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중심의 발전의 기준은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A. 셴은 발전이란 인간이 향유하는 실질적 자유를 확장시키는 과정으로 규정한다. 즉 발전은 부자유와 주요 원천, 곧 빈곤뿐만 아니라 압제, 빈약한 경제적 기회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박탈, 공공시설의 부실뿐만 아니라 국가의 과도한 억압과 같은 것들의 제거를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제 한 사회의 발전은 경제적 수준뿐만 아니라, 자유삶의 질 등 행복 등 기준에는 다소 유보되었던 개념에 대한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그 중 사회 구성원의 행복은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으로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다. 행복은 심리적으로 욕구가 충족된 상태 또는 만족으로 느끼는 정신적 상태를 의미하고, 경제적 수준, 사회적 수준, 건강 등의 다차원적 가치와 복합적이 관계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아직 주류는 아니지만 국내외의 많은 연구가 행복을 발전에 수준으로 삼고 이를 주요한 정책적 지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한국사회 전체보다, 지방정부와 지역차원에서 보다 선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충남의 경우 그 대표적 사례이다. 충남은 행복을 도정의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도민의 행복을 위해 많은 정책적 실천을 하고 있다.

이에 보조를 맞추어 충남발전연구원의 경우에는 2012년에는 충남의 행복지표의 측정 틀을 정립하는 연구를 시도하여, 행복에 대한 정의, 행복에 대한 정의, 행복지표를 구성하는 영역과

영역별 지표의 선정, 충남 행복지표 설정에 있어서의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 영역별 도민의 만족도 및 영역별 객관적 세부지표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 등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편 2013년 정립된 충남 행복지표 측정틀에 의해 도민의 행복지표를 측정하고 도민의 행복에 대한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도민의 행복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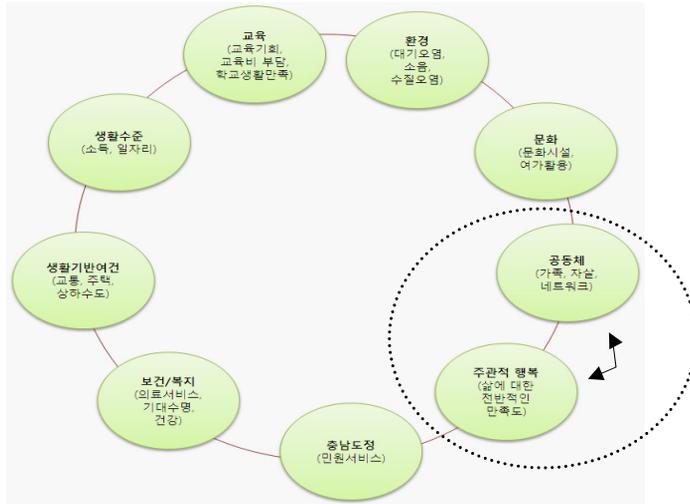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아직 초보 단계여서 기대와는 달리 행복지표의 정책적 활용은 그리 활발하지 못한다. 따라서 보다 실질적인 정책적 활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결과의 축적이 필요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행복측정이 보다 정밀하고 활발히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행복의 실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실현을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 축적이 필요하고, 다양한 단위에서 측정을 통해 우리 삶의 영역에서 실질적 행복증진의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속 기존에 의 연구에서 규명한 행복을 구성하는 9개의 영역 중 공동체 부분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근본적인 목적은 2012년과 2013년 연구로 충남에 적용할 수 있는 행복의 지표의 총 9개의 구성영역 중 공동체 영역, 주관적 행복 영역을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들 영역간의 상호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행복의 증진을 위한 정책적 활용을 위해서는 9개 영역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공동체 영역에 대한 심층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인간의 삶에서 공동체는 가장 근본적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공동체는 지역을 기초로 하는 사회관계 속에서 동일한 규범을 공유하면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다. 이러한 영역은 다른 어떤 영역보다는 인간의 삶과 행복에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에 기초한 전통적인 생활양식에서 벗어나서 산업화되고 도시화 된 현대 사회에서 공동체 의미는 매우 추상적인 의미가 되어 버렸다. 그래서 공동체적 가치를 객관화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우회적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한 전략 중 현재 가장 의미 있는 것이 사회자본의 개념을 활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1〉 행복지표 9개 영역과 본 연구의 분석 범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학계에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회자본의 개념을 공동체의 발전을 측정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자본의 측정을 바탕으로, 사회자본이 충남도민의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충남도민의 행복도 증진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공동체 영역의 핵심가치로서의 사회자본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지표설정
2. 설정된 사회자본의 지표를 활용하여, 충남의 사회자본 측정(도시, 농촌, 어촌)
3. 객관적으로 측정된 사회자본을 활용하여, 사회자본과 주관적 행복의 관계 분석
4. 측정된 사회자본과 행복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인 삶 속에서 살펴보기 위한 현장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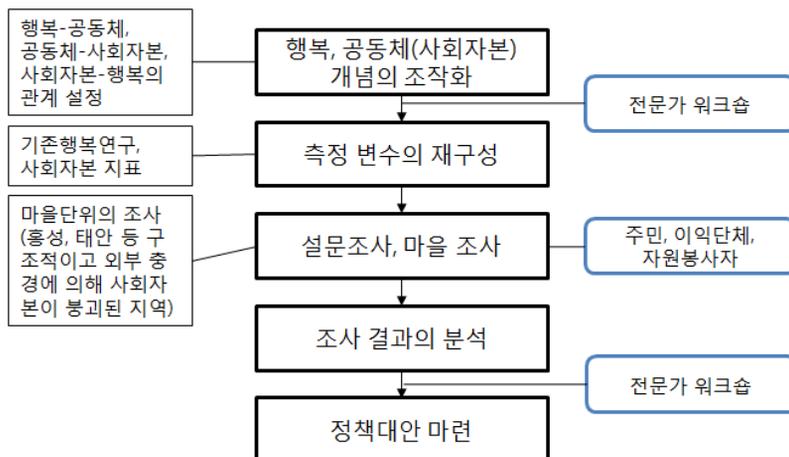
## 2. 연구 절차 및 주요 내용

### 1) 연구의 절차

본 연구를 진행은 지난 2년간의 행복연구를 정리하여 주관적 행복과 공동체 영역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정리하여 기존의 행복을 구성하는 9개의 영역 중 주관적 행복의 영역과 공동체와 관계를 재구성할 것이다. 이후에 공동체 영역의 핵심 개념으로서 사회자본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측정 지표를 구성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워크숍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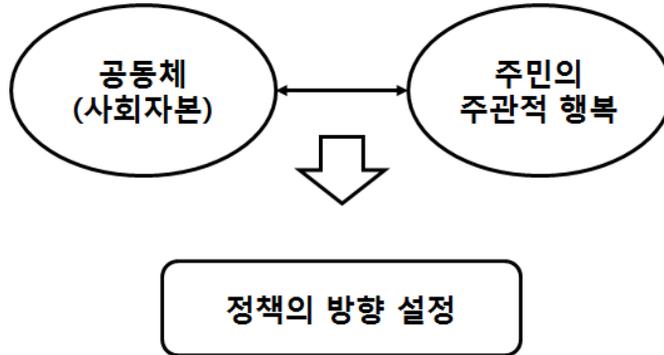
이러한 측정지표를 바탕으로 충남의 사회자본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조사는 충남의 대표적 지역으로 도시, 농촌, 어촌을 설정하고, 아산, 홍성, 태안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행복이란 설문문항으로만 측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많기 때문에 마을 단위의 현지조사를 통해 마을주민들과의 심층면접을 병행해서 실시할 것이다. 특히 마을 내외부의 사회적 변화와 충격으로 급격한 사회관계의 변동을 겪고 있는 홍성과 태안 지역이 마을 조사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와 마을 조사를 통해 확보된 자료를 심층 분석하고 실제로 충청남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으로 연구를 마무리 하였다. 이 과정에서 분석자료의 해석과 이를 통한 정책적 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실시하여 보다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그림 1-2> 연구의 추진체계

## 2) 연구의 내용



<그림 1-3>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근본 목적인 충남도민의 행복도 증진을 제고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도출한 9개의 행복 구성 영역 중 공동체(독립)-주관적 행복(종속) 영역의 상호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적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그림 3>에서 나타난 것처럼 본 연구는 2012년과 2013년 행복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영역중 주민의 주관적 행복을 종속 변수로 설정하고, 공동체 영역을 독립 변수로 하여 각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두 변수의 개념 정립이 우선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지난 2년간의 연구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주관적 행복에 대한 개념은 이번 2번의 연구를 통해 충분이 연구되었다. 따라서 지난 2년의 행복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중 공동체와 주관적 행복의 기본 관계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설정을 바탕으로 분석의 핵심이 되는 공동체적 영역을 사회자본의 개념으로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공동체는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자,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다의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현재 지역공동체의 발전의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사회자본의 개념을 빌려 지역공동체의 특성을 밝히고 이를 개념화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는 사회자본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분석하여 지역사회에 적용가능하게 조작적 정의를 내렸다.

이러한 조작적 정의를 기초로 사회자본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몇 가지 차원으로 구성하였고, 주관적 행복은 지난 연구에서 개발된 지표를 활용하여 충남의 사회자본과 주관적 행복을 객관적 지표를 측정하였다.

## 제2장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의 분석틀 설정

### 1. 공동체와 행복과의 관계 설정

#### 1) 가족 및 공동체의 의의

가족은 개인이 출생 후 가장 처음 접하게 되는 1차적인 집단이다. 모든 개인에게 정서적, 육체적, 재정적 보살핌을 제공하는 근본적 원천이다. 구체적으로 구성원 간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가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등은 개인의 삶의 질에 너무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예를 들면 결혼만족도나 부모 자식간 만족도는 전체 삶의 만족도에서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가구형태(living arrangement)에 따라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이 차이가 난다. 나이든 부모의 건강상태는 장기적으로 중년인 자녀의 경제적 상황과 삶의 과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가족 영역은 삶의 질을 측정하는데 언제나 살펴봐야 하는 분야이다.

게다가 최근 한국의 가족은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저출산 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양해야 할 노인들은 늘어가고 있다(한국인구학회 2011). 더 이상 여성들은 가족에 안주하고 있지 않고 경제적 안정과 자아의 실현을 위해 취업전선에 뛰어들고 있다. 자녀양육을 위해 치러야 할 대가는 앞 세대에 비해 너무나 커져 버렸다. 최근 청년들은 과거와는 너무나 다른 성인으로서의 이행기(transition into adulthood)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가족구성원의 역할구조가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다. 이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응 방식은 가족구성원 모두에게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때문에 가족 영역을 살펴볼 때 최근 변화상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웃공동체와 친구공동체는 사회적 연결(connection)의 가장 중요한 근원이다. 이웃이나 친구 등 공동체 소속감과 더불어 사회신뢰, 사회참여 등에 대한 부분으로 삶의 질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수많은 사회학적 연구들은 개인의 특성과 함께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가 삶의 기회와 방식을 구성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의 영향을 사회자본(social capital)으로 개념화하기도 한다. 다양한 사회적 관계 중 이웃이나 친구 등 친밀한 관계(intimate relationships)는 특히나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갖고 있다. 친밀한 관계의 조언이나 도움은 건강의 유지와 일상의 구성에 주요한 사회적 통제 기제(social control mechanism)이다. 이웃, 친구, 동료와의 관계에 의해 유지 또는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은 개인의 삶의 질에 매우 큰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공동체는 이렇게 삶의 질에 대한 근본적 연관을 갖고 있다.

최근 현대 사회는 급격한 개인주의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강조하고 가족이나 지역 등 1차적 관계가 갖는 중요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있다. 아이러니하게 이러한 상황 때문에 삶의 질에서 공동체가 갖는 의미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친밀한 관계의 패턴은 개인을 자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삶의 질을 측정하는 사회지표는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고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꾸준히 살펴봐야할 것이다.

## **2) 가족 및 공동체영역에서의 선행연구 사례**

### **(1) 일본의 사회지표**

일본은 서구의 여러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경제발전의 통계적 지표로서 GDP가 지닌 양적 단일경제지표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생활의 다면적이고 풍부한 질적 측면을 측정하여 사회정책에 반영하고자 사회지표를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1986년 신사회지표(new social indicators: NSI), 1992년 신국민생활지표(people's life indicators: PLI) 그리고 2002년 생활개혁지수(life reform index: LRI) 등으로 이름과 체계, 추산방법 등이 바뀌면서 이어졌다. 이중 가족과 공동체와 관련 있는 지표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1〉 일본의 생활개혁지수 중 가족과 공동체 관련 지표(2004년)

구조개혁측면	관련정책(평가포인트)	개별 지표
애키우기 좋은사회	애키우는 가정지원	패밀리서포트센터수(+)
		보육원아동수(0~5세인구만명대비: +)
		유치원재적률(3~5세인구만명대비: +)
		아동관수(3~11세인구만명대비: +)
		아동학대상담처리건수(-)
여성이 활약하기 좋은사회	맞벌이 가정지원	보육원아동수(0~5세인구만명대비: +)
		연장보육실시시설수(대상천세대당: +)
		방과후아동학급설치수(6~10세인구만명대비: +)
	여성의 취업지원	여성고용취업률(+)
		여성관리직비율(+)
	여성의 사회진출	여성의자원봉사활동참여율(+)
	고령자가 활기넘치는 사회	고령자의 취업지원
실버인재센터등록자수(+)		
시설의 확충		특별요양노인흡정원수(65세이상인구만명당: +)
		경비노인흡정원수(65세이상인구만명대비: +)
개호서비스의 충실		주간서비스시설수(65세이상인구만명대비: +)
사회참여의 촉진		고령자의자원봉사활동,사회참여활동시간(+)

위에서 살펴본 일본의 지수들은 주로 관청 기록이나 통계 자료 등 기존 자료들을 활용하려 만들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 지표들을 위해 따로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표생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그리고 지표에 근거한 정책 목표가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패밀리서포트센터의 수라든지 실버인재센터 등록자의 수 등은 개념이 분명해서 매년 추이를 명확하게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취약 지역 및 대상도 비교적 용이하게 알아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지표를 올리기 위한 정책 방향도 명확하다.

그러나 이런 객관적 측면에 대한 지표로는 실제 국민의 주관적 측면을 측정하기란 불가능하다. 여성의 취업률이나 관리직비율 등은 직장에서 여성들의 객관적 위치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실제 업무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나 즐거움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수치 중심의 지표로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끌어낼 정책을 찾아내기 난망하다.

## (2) 캐나다 웰빙지수

캐나다 웰빙 지수(이하 CIW, Canadian Index of Wellbeing)는 인간의 행복을 나타낼 수 있는 다차원적 척도를 구성하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CIW는 생활수준(Living Standards), 건강(Health), 공동체 활력(Community Vitality), 민주적 참여(Democratic Engagement), 여가와 문화(Leisure and Culture), 시간사용(Time Use), 교육(Education), 환경(Environment) 등 모두 여덟 개 하부영역들로 구성되어 있다. CIW 프로젝트는 궁극적으로 캐나다인의 삶의 질을 나타낼 수 있는 단일한 지수와 각 하부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단일한 지수(Headline indicators)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 중 가족과 공동체 부문은 공동체 활력과 시간사용 영역에 들어가 있다.

〈표 2-2〉 연령/생애단계별 잠재적 시간이용 지표 및 웰빙과의 연관성

연령/생애단계	유형	웰빙과의 연관성	잠재 시간이용 지표
아동/청소년	객관적	+	미취학/취학 아동을 위한 독서시간
	객관적	+	청소년을 위한 숙제도와주기 시간
	객관적	-	아동/청소년의 TV시청 시간
	객관적	-	아동/청소년의 비교육적 컴퓨터 이용시간
	객관적	+	아동/청소년의 체계적인 특별활동시간
	객관적	-	청소년의 비체계적인 활동시간
	객관적	-	학생의 근로시간
	객관적	+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시간
	객관적	+	부모와 보내는 시간
	객관적	+	가정내에서 부모와의 식사시간
	객관적	-	부모의 근무제(오랜 근무시간)
	객관적	-	부모의 근무제(비정기적 근무시간)

〈표 2-3〉 공동체 활력 영역의 지표들

구분	개념	지표
사회 참여	사회 참여	· 집단활동 참여
		· 자원봉사
		· 자선기부
	시민 참여	*민주적 참여 영역에 포함
경제적 참여	*생활수준 영역에 포함	
사회적 지원	사회 연결망 규모	· 가까운 친척의 수
		· 가까운 친구의 수
		· 가까운 이웃의 수
		· 독거 여부
	호혜성	· 타인 돕기
		· 도움 수혜여부
지역사회 안전	신뢰	· 사람들에 대한 신뢰
	다양성 존중	· 연결 유대
		· 차별 경험
	이타주의	· 타자에 대한 배려
	소속감	·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
· 고립감		

캐나다 웰빙 지수는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주로 시간사용(time-use) 자료를 이용해서 접근한다. 예를 들면 부모와 자식 관계는 숙제 도와주기와 같이 지내는 시간을 통해서 측정한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같이 보내는 시간을 통해서 가족간 관계를 측정하기는 어렵다. 가족구성원 간 관계는 함께 보내는 시간 못지않게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인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관계의 주관적 측면은 같이 보내는 시간을 통해 포착할 수 없다. 더군다나 시간 사용 자료는 도 단위 조사에서 모으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자원을 소모해야 한다. 응답자에게 매우 큰 기억 부담을 안겨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국가 수준에서 모을 수 있는 자료이긴 하지만 지역 단위에서 시도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는 통계청에서 매 5년마다 생활시간자료를 모이고 있으며 외국에서도 대부분 국가 단위에서 자료를 모으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공동체 부문 지표들은 우리에게 시사점이 크다. 개념적으로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의 특징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행복에 영향을 주는 공동체를 포착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표와도 잘 부합된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남도 도민들의 공동체 활동과 측면을 조사하기에 차용을 할 만한 설문 문항이 많다고 할 수 있다.

### (3) 충남발전연구원의 행복지표 개발

충남의 행복지수관련 가족 및 공동체영역에서의 지표는 가족관계, 가족형태, 일가족 양립, 사회적 관계, 공동체 참여, 사회적 신뢰로 구분하여 고려하였다. 가족관계는 가족접촉빈도,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갈등, 가족폭력이 주관적 지표로 포함되며 가족형태는 한부모 가구비율, 독거노인비율, 소년소녀 가장비율 객관적 지표가 포함된다. 일가족 양립은 부정적 일가족 전이, 부정적 가족 전이가 주관적 지표로 포함되며, 사회적 관계는 가까운 친구수, 자살률이 객관적지표로 사회적 관계망이 주관적 지표로 포함된다. 공동체 참여는 사회단체 참여율이 객관적 지표로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주관적 지표로 포함된다. 사회적 신뢰 부문에서는 사회적 신뢰가 주관적 지표로 포함된다.

<표 2-4> 충남 행복지수 가족 및 공동체 영역 지표

구분		지표	
		객관적 지표	주관적 지표
가족· 공동체 부문	가족 관계	-	가족접촉 빈도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 갈등
			가족 폭력
	가족 형태	한부모 가구 비율 독거 노인 비율 소년 소녀 가장 비율	-
	일가족 양립	-	부정적 일가족 전이
			부정적 가족 전이
	사회적 관계	가까운 친구 수 자살률	사회적 관계망
공동체 참여	사회단체 참여율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	
사회적 신뢰	-	사회적 신뢰	

### 3) 가족 및 공동체영역에서의 행복지표체계

가족이나 공동체는 모두 쉽게 사용되는 개념이지만 실제 정의는 매우 까다롭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같이 사는 동거부부나 혼인을 했지만 교육이나 직업 때문에 따로 사는 분거부부 등 이전에는 거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생겨남에 따라 가족에 대한 조차적 정의는 매우 어려워졌다. 또한 공동체 역시 인터넷을 통해서 실제 만나지도 않지만 친밀감을 느끼는 대상 등 관계 형성 방식도 이전과 많이 달라짐에 따라 그 범위를 설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본 연구에서 가족은 “혈연이나 결혼, 입양, 계부모 관계 또는 대리양육을 통해 관계를 맺고 통상 같은 가구에 거주 하는 두 사람 또는 그 이상 사람들”로 가족을 이해한다. 공동체는 일차적 관계를 포함해서 통상 핵심 공동체와 지역공동체를 포괄하는 것을 정의한다. 여기서 지역은 시군을 기준으로 한다.

많은 연구들이 가족과 공동체는 정서적, 육체적, 재정적 보살핌과 지원을 통해 삶의 질에 긍정적인 기여한다. 그러나 몇몇 지수(예, 캐나다 웰빙 지수(CIW))에는 공동체 활력 영역에 독거여부나 친척 수 등 몇몇 가족 관련 지표들을 포함시키는 데 그치고 있다. 그리고 몇몇 지표들은 가족과 공동체를 분리하여 각각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일본의 신생활국민지표는 양육, 교제/관계 영역을 따로 두고 각각의 영역에서 육아와 교육 그리고 지역교류와 사회활동 상황과 관련된 지표들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가족과 공동체를 구분하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각 문화권마다 가족과 공동체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고 두 영역을 굳이 하나로 통합해 다룰 필요가 없는 사회도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현재 정부의 정책 서비스들이 가족과 공동체에 의해 보완되거나 또는 가족과 공동체를 통해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복지체제에서 두 영역의 중첩과 교차가 빈번한 현실을 감안할 때 두 분야를 분리하면 우리의 행복에 대해 불완전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게다가 한국은 사회적 규범과 가치의 교육과 전수가 자주 가족과 공동체의 상호관계에 의해 실현된다. 때문에 두 영역을 별개로 취급하기 보다는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인의 삶의 질 논의에서 가족과 공동체는 하나의 틀 안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가족과 공동체를 사회구성원들에게 돌봄과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주요 기제로 파악한다. 한국인은 가족 내에서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 받는 정서적 심리적 지원을 통해 영향

을 받는다. 결국 이러한 가족과 공동체의 기능에 의해 삶의 질이 결정된다.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두 영역은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 개인들은 가족과 공동체를 통하여 보살핌, 지원, 안전을 제공받으며, 교육, 의료, 여가, 교제 등의 기회들을 누린다. 또한 정체감, 소속감, 사회적 가치 및 규범은 이 기관들을 통해 재생산된다.

이러한 가족과 공동체의 기능과 역할을 측정하기 위해 충청남도의 사회지표는 “가족관계” “가족형태” “일 가족 양립” “사회적 관계” “공동체 참여” “사회적 신뢰” 등 중분류 범주로 구성한다. 가족관계는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가족 구성원과의 친밀한 사회적 상호작용은 다양한 감정적 자원 역할을 한다. 특히나 일상에서 또는 삶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장의 자양분 역할을 하게 해준다. 그리고 가족관계는 사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효과적 전달자 역할을 한다. 행복에 미치는 가족관계의 특성은 다양한 형태 가족 상호작용(대화 등 접촉, 구체적 사안에 대한 갈등, 구성원 간 폭력), 그리고 각 가족 구성원에 대한 주관적 전체적 만족도 등을 통해 측정한다.

최근 가족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가족의 구조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높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일반 핵가족에 비해 소년소녀가장가구, 한 부모 가족, 독거노인 가족이 보살핌과 정서적 만족을 훨씬 덜 느낀다고 한다. 가령 늘어나는 이혼으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조손가족은 그 구성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아동은 성장기 사회화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해서 삶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일 가족 양립은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새롭게 떠오르는 관심 분야이다. 남편의 경제적 위치가 예전처럼 단단하지 않은데다가 여성들도 직장에서 자아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커짐에 따라 기혼여성들도 기회만 있으면 취업전선에 뛰어들고 싶어 한다. 이에 따라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여성이 존재하는 전통적 역할 수행 방식은 그야말로 전통적인 방식이 되어가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여성 노동력을 잘 이용해야 가능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기혼 남녀가 일과 가족에서 부여받은 역할을 잘 수행하는지 여부는 각 부부의 삶의 질은 물론 사회 전체의 번영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일 가족 양립 정도는 행복을 측정하는 데 빠져서는 안 될 부분이다.

삶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외로움은 어느 개인이든지 피해갈 수 없다. 이 때 공동체를 통한 사회적 지지는 고통과 난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주요한 원천이다. 사회적 지지는 친밀한 관계속 상호작용, 배려나 관심, 소속감 등 개인 간의 구체적 상호작용에서부터 개인이 속한

사회의 정서적 물질적 도움을 모두 포괄한다. 이러한 공동체의 영향에 대해 비공식적 관계, 소속감, 공식적 제도 등이 강조된다.

기존 연구들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지역공동체 등으로부터 받는 도구적, 정보적, 정서적 지지, 즉 사회적 지지를 강조한다. 도구적 지지는 실질적인 원조를, 정보적 지지는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그리고 정서적 지지는 친밀감, 밀착, 동정, 관심이나 배려 등을 포함한다. 개인들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적 지지를 필요로 하며 이에 접근하기 위해 비공식적 및 공식적 관계를 활용한다. 사회적 지지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그 결과를 적절하게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은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 참여의 수준을 관찰하는 것이다. 사회적 관계는 결혼, 우정, 가족, 친구 관계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타인이나 공동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살핌과 서비스의 원천이다. 공동체 참여는 사회적 관계가 작동하여 그 결과로 나타나는 객관적 및 주관적 결속 수준을 의미한다. 덧붙여서 실제적인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행복 증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기본적으로 가족구성원 간(구체적으로 아내와 남편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얼마나 자주 접촉을 하는지 살펴본다. 접촉빈도는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척도이고 동시에 그 자체로 관계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준다. 자주 대화를 나누고 같이 식사를 하고 모두 공원에 놀러가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관계의 깊이도 더해진다. 그리고 주관적 만족도를 확인한다. 가족 간에 서로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너무나도 다르다. 예를 들어 모든 부부가 서로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하는 방식은 부부마다 또 부부끼리도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접촉빈도와 같은 객관적 측면과 상관없이 만족도를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관계만족도에 대한 문항이 필요하다. 가족갈등과 가족폭력은 최근 언론과 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관계의 개인화 경향이 널리 퍼져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 중 하나로 감정을 과거에 비해 솔직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강하다. 불만도가 높거나 좌절감이 크면 조용히 삭히기 보다는 겉으로 표현한다. 경우에 따라 가족구성원 간 싸우거나 때로는 폭력이 사용되기도 한다. 때문에 갈등 빈도와 폭력 횟수 등을 확인하여 과연 충청남도의 가족이 건강한지를 확인해볼 수 있다.

가족형태에는 한 부모 가구 비율, 독거노인비율, 그리고 소년소녀가장가구의 비율이 포함되어 있다. 한 부모 가구는 최근 언론에 자주 거론되는 가족해체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한 결과이다. 한 부모 가구는 대부분 가족해체에 의해 형성된다. 가족의 해체는 사회적 불안감의 증대와 함께 사회적 비용의 증대라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가족원

의 불행이 궁극적으로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가족의 해체 현상은 자라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청소년들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크고 성인이 돼서 빈곤층에 편입될 가능성도 크다(김혜란 외, 2004). 때문에 지역에만 부모 가구의 추이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한다. 늘어나는 고령인구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노인들이 삶의 질은 동거형태에 따라 크게 다르다고 한다. 특히 독거는 사회적 고립이나 외로움을 증가시키고 사회적 관계의 형성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혼자 사는 노인들은 우울, 고독, 스트레스 정도는 물론, 자살 충동도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정신건강의 측면과 더불어, 독거노인들은 영양섭취가 충분하지 못하고, 음주·흡연 등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가족성원의 부재로 인해 신체건강이 악화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혼자 사는 노인들 역시 잘 살펴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년소녀가장가구도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혼과 미혼모가 늘어남에 따라 어린 나이에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할 아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성년자에게 주어진 취업의 기회는 단순한 알바 수준의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은 다른 가구구성원을 제대로 돌볼 수가 없다. 게다가 경제적 부담 때문에 학업에 집중하기 어렵고 결국 성인이 되어서도 경제적 처지를 일으킬 수 있는 직업을 얻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지역의 미래를 밝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일 가족 양립은 부정적 일-가족 전이와 부정적 가족-일 전이 설문을 통해 측정한다. 맞벌이 부부가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잡으면서 여성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역할 갈등이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전통적 모델에서는 여성들은 집과 가정을 남성들은 직장을 책임졌다. 하지만 더 이상 이런 전통적 모델은 사회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여성도 이전 남성들이 독점하던 경제적 책임을 분담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가정적 역할에 남성들의 참여를 독려하게 되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성들의 부담을 많은 남성들이 덜어주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여성들이 결혼 또는 출산을 전후하여 직장을 그만두고 있다.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는 여성들도 두 가지 역할 간 갈등으로 힘겨워 하고 있다. 정부는 무조건 늦게까지 일 하는 모습을 장려하는 직장 문화를 지양하고 가족친화정책을 기업들에게 장려하는 등 여성들이 직장에 안심하게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기혼여성의 직장취업을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흐름이기에 취업여성들이 겪는 갈등의 최소화는 좋은 사회가 지향해야 할 주요한 목표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사회적 관계는 친구수, 주요 관계망, 자살을 등을 통해 측정한다. 가족, 친구, 친인척 그리고 지역공동체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개인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런 친밀한 관계에 의한 행복 증진 효과는 경제적 상황과 계층적 입지 못지않게 중요하다. 따라서 개인에게 중요한 타자 -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친인척 - 등과 얼마나 접촉하는지 그리고 그 관계에서 무엇을 교환하는지는 행복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그래서 각 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지내는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통해 보호망으로서의 사회적 관계를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자살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사인이다. 관계의 개인화 따라 어렵고 괴로운 상황과 심정을 이해받고 배려 받을 사람들을 점점 줄어든다. 이런 상황에서 자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일찍이 뒤르켐부터 자살은 사회적 망의 넓이와 깊이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때문에 자살은 사회의 감정적 사회적 취약계층이 분포를 알려주는 주요 지표로 여겨졌다. 이 자살율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사망 관련 자료를 통해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다.

공동체 참여 부문은 사회단체 참여율과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으로 측정한다. 공동체 참여와 관련해서 꼭 이해해야 할 개념이 사회의 질이다. 사회의 질이란 구성원들이 복지와 잠재력을 향상시키면서 공동체의 사회적 삶과 발전에 참여하고 공헌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참여를 통해 개인들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며 안정적인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즉 공동체에 대한 공헌과 헌신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이 고양되는 것이다. 최근 행복을 증진시키는 있어서 이러한 사회적 소속감의 중요성이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다. 개인의 삶에서 소속된 조직이나 공동체에 대한 공헌은 개인의 존재 의의를 명확히 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자본주의적 사회구조에서는 직장 등 수입을 얻는 조직에 도움을 주고 그를 임금이나 승진 등 방식을 통해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는 게 전통적 방식이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대상이 되는 조직 범위가 더욱 확장된다. 이에 학교, 친족 또는 지역 등과 관련된 연고집단 참여정도와 일반적으로 사회단체참여 비율이 주요 지표로 고려되었다. 이와 더불어 개인들이 지역사회를 가깝게 느끼는 정도 즉 소속감이 주관적 지표로 포함되었다.

사회적 신뢰 부문은 일반 사회와 지역 사회 리더들에 대한 신뢰 정도를 통해 측정한다. 최근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잘못된 사회지도층의 행태가 공공의 공분을 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위치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거나 아는 사람에게 챙겨주는 행위는 사회 구성원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무엇보다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 ‘빡’이 없으면 아무도 성

공할 수 없다는 믿음은 사회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개인들에게 한번 해보자는 의욕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측면을 학자들은 ‘신뢰’(trust)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 사회적 신뢰가 떨어지는 사회는 필요없는 안정장치를 계속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cost)가 크게 늘어난다. 이는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사회 발전에 큰 저해 요소가 된다.

지난 2년간의 행복 연구에서 행복과 가족 및 공동체 영역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것은 아마도 가족과 공동체가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토대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가족과 공동체는 행복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이고, 분리될 수 없는 요소일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족의 영역 보다는 공동체의 영역에 주목하여 행복과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이런 이유는 두 요소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만 실제의 정책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고, 정책적으로 개입하기 가족은 사적 영역으로서 그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 2. 공동체와 사회자본

### 1) 공동체의 의미

최근 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공동체가 사회의 중요한 주제로 등장한 이유는 계약에 기초한 근대적 합리성에 대한 반성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체에 대한 다양한 논의에는 각각 그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먼저 공동체를 형식을 지나치게 이상화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과거의 공동체를 이상화하여 '잃어버린 전통'(Delanty, 2003)으로 간주하면서 현대에 되살리자는 주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생활환경이 변화한 현대 도시에 삶 속에서는 적용하기 힘든 주장이다. 한편 개인화된 현대의 삶을 공동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주장이 존재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주장의 상당수는 공동체적 삶을 모습을 강조한 나머지 개인적인 자유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고 있다. 개인의 자유는 근대에서 발견된 가장 소중한 유산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현대의 공동체는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공동체적 가치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넘어 현대적 의미의 공동체 형성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은 푸트남(Putnam, 1993)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제시한 시민공동체이다<sup>1)</sup>. 특히 푸트남의 논의는 이탈리아 지역 연구를 통해 지역의 소규모 결사체 주목하고, 소규모 결사체의 참여가 다양한 공적 영역의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적 덕성(civic virtue)을 함양하여 시민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것이다(이선미, 2007). 이러한 논의는 기존의 공동체 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지만, 서구와는 다른 발전 과정을 거쳐 온 한국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한국만의 공동체가 형성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 사회만의 공동체 형성의 조건 탐구라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정의하기가 매우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이다. 즉 공동체는 중층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 학자에 따라서 강조하는 공동체의 차원이 다르고, 또한 맥락에 따라서 공동체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동체는 소수로 구성된 가족이나 동료 집단에서부터 거대한 지역 사회를 의미하는 개념까지 포함하는 복합 개념으로 사용되는가 하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집단 이데올로기나 공유 특성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강대기, 2004). 공동체는 그 어원상 라틴어의 com(같이 함)과 unus(하나)의 합성어로서 여러 가지 요소들의 통일(union of many elements)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Keller, 2003).

근대화된 사회에서의 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첫째 근대화와 이에 따른 도시화로 인해 공동체의 건설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둘째 산업화된 도시에서도 이상적이 공동체의 실험을 시도했던 푸리에, 오웬, 하위드의 경우나, 여전히 지역적 공동체의 구현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여기에 더해 양자의 절충으로서 해체된 공동체의 현대적 의미성을 찾아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는 논의도 있다.

---

1) 다양한 시민공동체에 관한 내용은 이선미(2007)의 논의를 참조하라.

이러한 다양한 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은 파편화된 현대 사회에서 연대에 친밀한 사회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 기인하난 바가 크다. 즉 근대적 이성의 원리인 계약에 대한 한계인식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시 돌아보게 하였고, 공동체는 과거에 대한 향수 혹은 추구해야 할 이상향으로 제시되며 잃어버린 전통을 회복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연구에서 추구하는 공동체의 포괄적 의미는 산업화되고 분절화된 일상생활에 기초한 도덕적 실체로서의 공동체이다.

**<표 2-5> 공동체와 사회**

공동체	사회
자연 의지	합리적 의지
자아(self)	인격
토지	화폐
가족법	계약법
소명	사업
노동	교환
창조	수용
문화	문명
유기성	기계성
가족	사회
공산주의	사회주의

서구에서 공동체적 결합방식에 최초로 주목한 사람은 퇴니스였다. 그는 사회와 공동체를 서로 대비되는 개념으로 정리하고, 이 두 개념이 사회적 관계의 두 가지 다른 표현 형태이며, 각각은 서로 다른 '인간의지'의 산물이라고 말한다. 공동체는 혈족을 중심으로 한 위계적 집단으로 '본질의지'의 산물이고, 반면 사회는 '선택의지'의 산물로서 근대에 오면서 사회가 공동체를 대체 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주장을 요약하면 <표 2-5>과 같다.

퇴니스에게 공동체는 인간의 이상추구 방식을 말한다. 공동사회는 불평등하나 가장 자유롭고 안정된 삶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합리적 의지가 지배하여 교환과 계약에 의해 사회적 결속이 이루어지는 현대사회에는 구현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는 현대의 공동체 개념의 준거 틀을 제시하였다. 결국 그의 연구는 위스(Writh, 1938)로 이어져 현대사회에서 공동체

의 복원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이른다(강대기, 2004). 한편 니스벳(Nisbet, 1967)은 공동체를 단순히 도덕적, 정치적 이데올로기 현상으로 보지 않고, 공동체를 사회의 기본단위로 보았다. 이러한 공동체는 인간생존에 기본 조건이 되는 안전과 소속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국가의 폭력을 막는 수단이 된다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국가의 확대와 산업화가 인간생존의 기반이 되는 공동체의 상실을 가져왔다. 이러한 국가에 의한 공동체의 소멸과 이에 따른 대중의 정치로부터의 소외를 사회적 무질서 유발하는 원인으로 설명하며 공동체의 부활을 통해 효과적으로 인간소외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공동체에 대한 재인식은 산업화 시기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성찰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공동체와 사회자본의 관계를 논의하기 먼저 공동체의 구성요소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틸란티의 논의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는 연대이다.

**<표 2-6> 공동체 개념화 유형**

공동체 개념화 유형	핵심구성요소	공동체의 성격		
		공동체의 내용	익명성-직접성	권력관계
전통으로서의 공동체	잃어버린 전통	실제적 생활체	직접적 관계	고려 안됨
사회공동체	근대 안에서 재발견된 연대	도덕적 실체	익명적 관계	고려 안됨
정치공동체	정치적 타협	문명적 가치 합의에 의한 정치적통일체	익명적 관계	고려됨

현재 공동체의 위와 같은 세 가지 방식으로 유형화 될 수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원리의 공동체와는 조금 다른 방식이다. 이 세 가지 유형의 공동체 상황에 따라 서로 결합되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의미를 갖는데, 현 시기 공동체라는 것은 이 세 가지 개념이 결합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결국 경쟁적인 인간관계 대신 유대를 바탕으로, 사회적 유대가 형성되고, 이는 행정적 제도를 통해 지원되는 공동체로 상정할 수 있다.

결국 오늘날의 공동체는 제도를 통해 지원되고 전통적인 유대와 현대적인 연대가 조화된 것으로 개념화해야 하는데, 이러한 공동체의 핵심원리는 사회적 연대이고 연대를 구성하는 원인이자 결과인 ‘사회자본’이 가장 핵심적인 원리라 할 수 있다.

## 2) 사회자본의 의미

최근 사회자본(social capital)은 사회학과 경제학은 물론 경영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 과학과 정책영역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경제학적 측면에서는 물질자본, 인적자본 등과 더불어 발전과 성장의 동력이 되는 제3의 자본으로 주목받고 다. Putnam(1993)은 사회자본을 “공동체의 사회적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형성되어 개인과 집단의 발전을 가져오는 동력”으로 말하고, 세계은행: “경제발전이나 빈곤퇴치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범죄, 교육 격차, 공공위생, 환경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자원으로 평가 받고 있다. 즉 사회자본은 기존의 물질적 자본, 인적자본, 문화자본과 구분되는 자본으로 사회발전의 기초이자 결과로 평가되는 자본이라 할 수 있다.

**<표 2-7> 사회자본과 다른 자본과의 차이**

	경제자본	인적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
이론적 의미	생산수단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본	자본가에 배타적 소유만 인정되는 자본 개념 수정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의 불일치	개인이 아닌 사회적 관계에서 파생되는 자본
자본 소유자	개인(자본가)	개인(노동자)	가족, 가족의 개별 구성원	집단(사회집단)
자본 소유자가 갖는 이익	타인의 노동에 대한 착취를 통한 경제적 이익	노동시장에서 협상력 증대(높은 임금)	다른 계급과의 구별짓기, 계급의 재생산	정보의 취득, 사회적 연대, 결속의 창출
자본의 존재형태	물질적 대상 (생산수단)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개인에 체화된 기술, 지식	가족이 공유하는 문화적 취향	사회적 관계 속에 존재하는 신뢰와 결속
분석단위	구조(계급)	개인	가족	개인 또는 집단
연구의 초점	자본과 노동 사이의 계급 갈등	교육과정과 임금수준의 연관 등	문화자본을 통한 세대 간의 계급 재생산	개인 또는 집단 사이의 관계유형

사회자본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파생되는 자본으로서 중요 구성요소인 신뢰, 네트워크, 규범 등을 통해 발현되고, 구성원들 사이에서 서로의 관계를 확인하는 지속적인 사회적 교환과정을 거쳐야만 유지되고 재생산된다. 사회적 교환으로 생기는 사회자본은 제로섬(zero-sum) 관계가 아닌 사용하면 할수록 총량이 증가하는 독특한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사회자본은 상호이익을 위한 조정과 협력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경제적 효율을 높이는 촉매제 역할을 하여 경제적 성장과 사회발전에 기여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집합제(Collective goods)로서 사회자본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딜레마(공유제의 비극)를 해결해 준다는 의미에서 지역발전의 전제조건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사회자본의 수준의 파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지역 수준의 사회자본 측정을 위해서는 지역의 현실에 맞는 사회자본 측정지수를 개발하여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자본은 그 개념의 모호성으로 많은 논쟁을 야기 하고 있지만, 대체로 2가지 구성요소로 수렴된다. 난민은 다양한 논쟁이 되는 사회자본은 사회적 관계에 의해 생성되는 것으로 사회적 관계와 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행위와 관련된 개념, 즉 2가지 구성요소로 수렴한다고 말한다. 1) 사회자본은 개인보다 사회적 관계 속에 생성되는 자원으로서 경제적, 인적자본과의 차별성을 드러낸다. 2) 사회자본의 접근과 사용은 관계 속의 사람들에 의해 결정되는 자원이다.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인식할 경우에만 자원화 가능하다. 이러한 개념의 동의와 더불어 다양한 사회 자본에 대한 논쟁도 존재한다.

**<표 2-8> 사회자본 개념의 논쟁점**

쟁점	함의	문제점
집합적 혹은 개인적 자산 (콜만, 퍼트남)	집합재로서 사회자본	규범과 신뢰와의 혼동
폐쇄된 혹은 개방된 네트워크 (부르디외, 콜만, 퍼트남)	집단은 폐쇄성을 갖거나 조밀해야한다.	계급사회의 관점과 이동성 누락
기능적(콜만)	사회자본은 그것의 특정 행위에 대한 결과로 확인	순환론(원인이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
측정(콜만)	수량화할 수 없다	발견적, 반증 불가능

### 3) 사회자본의 특징

#### (1) 사회적 관계 속의 자본

사회자본의 특징으로는 첫째, 다른 경제자본이나 인적자본과는 달리 사회적이라는 점이다. 즉 사회자본은 사회적 관계에 존재하는 것으로 사회구조나 사회적 관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사회구조에 참여하고 있는 행위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둘째, 관찰적인 면에서 물리적 자본은 구체적으로 관찰이 가능한 반면, 인적자본보다도 사회자본은 더욱 직접적인 관찰이 힘들다.

셋째, 사회자본은 사용하면 할수록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회자본은 도덕적 자원이다(Hirschman, 1984). 도덕적 자원은 사용하면 할수록 공급이 많아지고 자원이 확대되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고갈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넷째, 사회자본은 선별적 교환이 가능하다. 한 종류의 목적이나 행위를 촉진시켜주는 사회자본은 다른 목적이나 행위에는 부적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위계적 규범은 군대 조직에서는 효과적인 사회자본일 수 있으나 친구집단에서는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저해할 수 있다.

다섯째, 사회자본은 사회적 관계를 맺은 행위자들 간에 공유되는 반면 개별행위자에게는 독점되지 않는다. 경제자본 등은 개별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비 형태적인 사회자본은 행위자간 공유되는 관계로 독점적 소유권을 주장하기 힘들 뿐 아니라 행위자가 관계를 종결하면 소멸된다.

여섯째, 사회적 성공여부의 불균형을 인적자본이 개인의 능력으로 설명한다면 사회자본은 기회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 (2) 사회적 교환관계

사회자본은 사회적 교환관계라는 특징이 있다. 경제적 교환이 일어나는 곳은 시장이나 기업간의 연결망이지만, 사회적 교환관계가 이루어지는 곳은 가족이나 동창회, 기업이나 행정기관 내부 동료들 간의 관계와 같은 비공식적 연결망이다. 사회적 교환관계가 경제적 교환관계

와 다른 점은 경제적 교환관계는 거래당사자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보일 때 관계가 지속되지만, 사회적 교환관계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미래의 의무를 전제로 하는 상호간의 신뢰 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조직상황에서 사회적 교환관계를 보면 블라우는 사회적 교환이론의 기본전제는 비용보다는 이익을 더 많이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와 의무에 있으므로 조직은 행위자의 노고를 인정하고 보상해주며, 행위자의 동기수준을 높임으로써 사회적 교환관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블라우는 또 사회적 교환이론의 기본 전제는 비용보다 이익이 더 많이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므로 조직은 행위자의 노고를 인정하고 보상해주며, 행위자의 동기수준을 높임으로써 사회적 교환관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조직의 구성원 간에도 사회적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즉 계약조건 범위내에서의 행위(In-Role)는 경제적 교환관계에 있지만 조직시민행동과 같은 계약조건 밖의 행위(Extra-Role)에 가까이 참여하는 종업원의 행위는 사회적 교환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물질적인 이익과 지위, 충성심, 인정(approval)을 포함하는 심리적 보상을 동시에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4) 사회자본의 형성조건

Coleman(1988)은 사회자본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적 관계 혹은 사회구조의 폐쇄성(closure)이다.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이 활발하게 자원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도움을 제공하였을 때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회구조의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사회구조의 신뢰성은 사회구성원들이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을수록 또 사회적 상호작용의 범위가 완결 또는 폐쇄되어 있을수록 그 수준은 높아질 수 있다. 개인이 필요할 때 자신도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수록 그 개인은 자발적으로 도움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개인이 속한 사회적 관계가 폐쇄적일수록 구성원들이 서로 알고 지낼수록 가능하다.

즉, 사회구조의 폐쇄성은 한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직접다시 도움을 받지 않는 않더라도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사회성원들이 기대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형성되는 사회구조의 신뢰성은 도움을

직접 주고받는 양자관계에서 제3자에 의한 매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자본의 형성범위를 확대시킨다. 조직은 그 자체가 폐쇄적 연결망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교환되는 매개는 정보와 통제권이다. 폐쇄적 연결망에서 구성원들은 양질의 정보를 서로 교환함으로써 정보클럽의 장점을 누리게 된다.

둘째, 사회자본이 형성되기 위한 사회적 조건은 사회구조의 안정성에 있다. 만일 사회내에 개인의 물리적 사회적 이동이 극심해서 사람들간에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면, 사람들은 사회자본에 투자할 유인이 작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사회자본이 형성되기 힘들다. 주커(Zucker, 1986)는 전통사회에서 신뢰는 개인과 집단 간에 반복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서로에 대한 친밀성과 평판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아는 사람에 대한 신뢰는 사회적 이동이 활발하여 상대 개인이나 집단을 파악할 시간이나 기회가 적은 상황에서는 형성되기 힘들기 때문에 현대사회로 오면서 이러한 유형의 신뢰 혹은 사회자본은 점점 더 형성되기가 힘들 것이다.

셋째, 다른 사람이나 집단의 이해를 개인의 이해보다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 이데올로기 혹은 규범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사회자본이 형성되기 쉽다. 반대로 개인적 이데올로기는 사회자본의 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데 개인주의는 단지 집단보다 개인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급자족을 강조하는 믿음도 해당된다는 것이다.

## 5) 사회적자본의 기능과 효과

사회자본의 핵심은 사회연결망(social networks)이 가치 있는 자산이라는데 있으며, 상호 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기능하기 때문에 사회적 응집력의 기반을 제공한다. 사회자본은 금융자본(financial capital), 물리적 자본(physical capital), 인간자본(human capital) 등 소유의 관점에서 접근되고 있는 전통적 자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전통적 자본의 개념과 대비되는 더욱 정교한 개념으로 발전해오고 있다. 그러나 사회자본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금융자본, 물리적 자본 등 전통적 자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

사회자본은 단일의 실체라기보다는 두 가지 공통적인 특성을 지닌 다양한 다른 실체들의 결합으로 보고 있는데, 두 가지 공통적인 특성이란 사회자본이 사회구조의 어떤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한 구조안에 있는 개인의 어떤 행동들을 용이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결국 사회자본은 사회구조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용이하게 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금융자본, 물리적자본, 인간자본 등은 배타적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강한 반면에 신뢰, 네트워크, 규범, 호혜성 등 사회자본은 반드시 상대방과의 관계를 포섭하는 경우에 쓰인다. 전통적 자본은 소유와 활용이 분리될 수 있으나 사회자본은 소유와 활용을 분리할 수 없다.

사회자본의 기능 및 효과에 대해 요약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로는 사회자본이 시장 경제의 핵심요소인 거래관계를 새롭게 형성한다는 데는 이론이 없으며, 정보력에 의한 영향력의 증대, 공동체 규범의 형성, 공공서비스의 개선과 사회통합도 기대할 수 있다.

### (1) 거래비용의 절감

사람들 사이의 안정적인 연결망이 생산요소가 될 수 있는 까닭은 이것이 생산적인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신뢰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개인이 사조직 간에 반복적인 상호작용에 의하여 신뢰가 형성되면 경제적인 거래에 거래비용의 감소이익을 가져오게 된다. 신뢰가 높은 행위자들 간에는 서면계약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사항들을 상세하게 구체화할 필요가 없으며 감시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거래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 개인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회자본은 사람들 간의 장기적인 결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기적인 사람들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주며, 이러한 사회자본의 효과는 신뢰가 제도화 될 때 더욱 높게 나타난다.

### (2) 정보력에 의한 영향력의 증대

사회자본의 정보이익은 제공된 정보의 신뢰가치에 있으며, 정보의 적실성과 적시성으로부터 발생한다. 사회적 구조유형과 관계내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은 접근한 정보의 질을 결정하므로 정보의 다양한 원천에 접근이 용이하며 또한 구조적 결점을 연결함으로써 강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경쟁자를 가진 행위자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소개 기능에 의하여 행위자와 직접 관계

하지 않는 대상들과도 연결시켜 좋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한다.<sup>2)</sup> 이러한 점에서 사회자본은 또 다른 관계망을 창출하는 도구적 역할을 한다.

### (3) 효과적인 공동체 유지를 위한 규범의 형성

사회구조내 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것은 효과적인 규범과 사회적 제재력이다. 집합행동의 논리를 보면 사회적 규범이 강화되면 규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제재를 가하는 효과를 갖는다. 또한 사회자본은 시민의 도덕감을 증대시켜 공직자의 업무수행을 감시 강화하여 집합행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집단행동을 촉진하여 가치 창출에 기여하게 한다.

### (4) 공공서비스 개선 및 사회 통합에 기여

공공서비스의 질 또한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퍼트남과 라 포르타 등은 사회자본이 교육, 의료 등 공공재의 수준, 정부재정의 효율성과 정부규제의 질 등 정부성과를 증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공공재는 사회전체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공공재 생산을 위해서는 각 개인이 조세 등 일정한 부담을 져야 한다. 따라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공공재의 혜택을 보려는 무임승차자가 생기게 되므로 공공재는 과소공급될 수 있다. 반면에 각 개인이 지연, 학연 등 폐쇄적인 신뢰를 넘어 다른 시민에 대해 열린 신뢰감을 가진 사회에서는 공공재 생산에 필요한 사회적 합의와 비용부담이 저신뢰 사회에 비해 훨씬 용이할 것이다.

또한 사회자본은 거래촉진과 투자증대 등을 통해 총량적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뿐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퍼트남(Putnam)은 사회자본이 풍부한 국가가 교육, 보건, 치안, 경제·사회적 평등의 측면에서 사회자본 수준이 낮은 국가보다 양호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회적 지표들은 사회양극화와 범죄율 등 사회불안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사회자본은 집단간 갈등과 분열을 완화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

2) Burt, R. S. (1997), The Contingent Value of Social Capital,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 42, p340.

## 6) 사회자본 구성요소

사회자본의 개념과 효과, 형성, 그리고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구성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논의는 많은 논쟁이 존재한다. 특히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이견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에 대한 많은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는 주로 신뢰, 네트워크, 규범, 호혜성 등이 구성요소의 형성을 촉진하는 참여라는 하위요소로서 이루어져 있다고 이야기 한다. 이러한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는 사회자본을 객관적 지표로 측정하는 지표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구성요소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 (1) 신뢰의 의의와 개념

신뢰란 개인, 가족, 학교, 이웃, 직장, 조직, 기업, 국가 등등 경제·사회·정치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의 믿음에 대한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로 대부분이 쉽게 사용하지만 너무 다의적이어서 개념화하기가 쉽지 않다. 신뢰개념은 개인 간, 조직 간, 개인과 조직 간, 조직과 조직 간의 모든 관계에서 존재한다. 개인 간의 신뢰는 연결망 중심의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조직신뢰는 조직에 대한 개인의 직무에 대한 몰입과 만족, 직무성과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신뢰에 대한 개념은 보편적으로 심리적 관점에서 보아 타인의 의도나 행태에 대하여 위험을 받아들이려는 의도로 구성된 긍정적 상태로 정의되고 있다. 신뢰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는 위험감수, 신뢰대상 행위에 대한 낙관적 기대, 자발성이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신뢰의 특성으로는 첫째, 신뢰는 장기간의 시간과 자원이 투자되어 형성되지만 훼손되기 쉽다. 사회 각 부문이 얽혀있고 신뢰도 개인 간·조직 간·제도 간·기타 환경 간 상호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한부분의 신뢰훼손은 전반적인 신뢰저하를 가져온다. 둘째, 비경합성의 특성을 보인다. 즉, 신뢰수준이 높은 사회에서는 타인에 대해 선택적·배타적이기 보다는 보편적·일반적으로 신뢰를 부여한다. 셋째, 신뢰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커지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고갈되는 특성이 있다.

신뢰의 기능은 사회자본의 핵심요소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즉, 구성원들의 자발적 협조를

통해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경제적 효용성을 증진하고, 신뢰가 높은 사회에서는 기본적인 입장이 다르더라도 쉽게 타협에 도달하는 통합기능이 활발히 일어난다. 또 조직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함으로써 법과 제도, 조직의 방침과 개혁 등에 대한 자발적 순응을 이끌어내어 조직의 대외 경쟁력을 높여준다. 그리고 신뢰는 조직 목표의 효과적 달성, 직무만족, 동기부여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서 전반적으로 조직의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지방정부 조직의 경우 결과적으로는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본 요소가 된다.

## (2) 규범

인간이 살아가는 곳에는 그 사회를 규율하는 사회규범(Social norm)이 존재한다. 그러한 사회규범들을 관습과 법, 윤리로 나눈다. 이러한 사회규범의 공통적 특징은 그 내용이 당위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규범이란 사회적·개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특정 기준 또는 공유된 가치를 의미하며 명시적·묵시적 성격을 아울러 띠고 있는 즉, 특저의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행동에 관한 특정규칙이다. 규범의 주종을 이루는 관습과 법과 윤리가운데 가장 근본적이며 중요한 것은 윤리규범이다. 윤리라는 개념은 단순히 우리가 지금까지 행해온 반복적인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가 옳으며 따라서 지켜야 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사회에는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도덕률이 있으며 이러한 도덕률을 하나로 묶어서 그 전체를 지칭할 때 ‘윤리’ 혹은 ‘도덕’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규범적 행동은 법률제도 등 강제성을 가진 사회규범이 지켜지는 정도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법질서가 잘 지켜지는 사회에서는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사회협력도 증진된다고 알려져 있다

## (3) 네트워크

네트워크는 두개 이상의 조직들의 공동의 이익으로서 장기간에 걸친 통상의 관심사의 달성과 “제해결 등과 같은 공동의 조직목표 달성으로 정의한다. 둘째, 대상범위에 따른 개념정의로는 ‘여러 관계의 연결체’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셋째, 교환방법에 의하면 네트워크는 네트워크를 통해 목표달성방법을 공유하고 수용하거나, 조정, 협동, 연계, 연대를 통하여 이전, 교환,

개발하는 것으로 본다.

네트워크의 기능으로는 의사소통 연계장치와 정보채널의 기능, 참여지지체계와 자원공유기능, 조정·협력·협의·프로그램 실현화·능력건설·훈련을 위한 수단의 기능, 집합적 행동을 위한 수단적 기능 나누어 설명되고 있다. 한편 사회적 네트워크를 사람, 집단, 조직 또는 사회적 단위들이 그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교환에 개입하고 상호 행동하는 사회적 배열로 보는 경우도 있다. 즉 사회적 네트워크는 결합과 응집을 위하여 사회적 인간적 상호작용을 추구한다.

네트워크의 특성은 조직간 네트워크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교환되는 조직간 관계나 적절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조직간 상호주고 받는 관계와 교환에 초점을 두고 있다. 네트워크 의미에 포함된 개념용어로는 조직간 협의·조정, 정서적 교환, 친밀감, 공동추진, 협력 등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체계가 잘 갖춰진 조직은 조직간 상호 호혜성이 높다. 조직의 상호호혜성의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자원이 유용해져서 조직 효과성이 높아진다. 상호작용의 빈도에 있어서도 접촉이 잦을수록 강한 유대관계로 발전하여 가치를 공유하고 서로의 욕구 충족이나 인식의 공유도를 증가시켜 상호호혜성에 의한 도움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기가 쉬워진다.

#### (4) 호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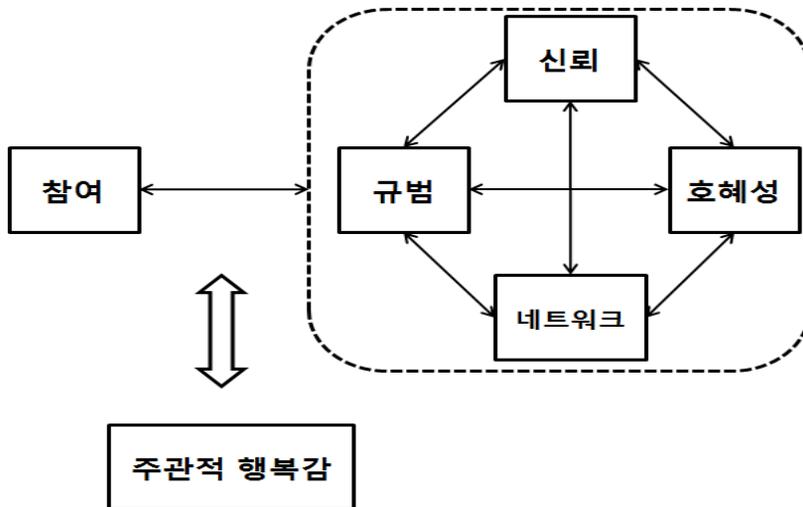
최종렬은 호혜성을 인류학자들의 논의를 빌어 사회의 교환과 재분배의 한 방식으로 규정한 다. 그런데 이러한 교환방식은 계약과 시장의 원리에만 기반한 교환과 분배의 방식이 아니라 의무감, 특히 도덕적 의무감에 기반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폴라니에 의해 호혜성은 재분배와 시장교환과 함께 경제적 통합 형태로 개념화한다. 즉 호혜성은 권력적 위계질서를 통한 재분배도 아니고 시장을 통한 교환도 아닌 도덕적 의무감에 의한 교환형태이다.

이러한 호혜의 일반적인 형태는 친절, 도움, 너그러움, 노블리스 오블리제 등이 있고, 이것의 작동원리는 경제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사회관계가 가하는 도덕적 힘이다. 호혜성은 권리와 의무의 상보적 관계를 가진 덕목이라 할 수 있다. 서로가 권리와 의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를 당연히 갖게 하는 공유된 도덕으로 이는 신뢰의 근본 원인이 된다.

### 3. 연구의 분석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가장 많이 합의된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 호혜성으로 이야기 된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사회의 참여는 이러한 사회자본의 하위요소를 촉발하는 계기로 작동하는 요소라 할 수 있어 사회자본을 측정하는 지표로 많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5가지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를 지표로 구성하여 충남 사회자본의 객관적 측정을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측정된 충남의 사회자본으로 충남도민의 주관적 행복도와의 측정하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과제이다. 이와 같은 관계를 구조화해서 분석틀을 설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1> 분석틀

# 제3장 충남의 사회자본과 행복 관련성 측정

## 1. 충남의 사회자본과 행복의 객관적 측정

### 1) 변수의 설정

공동체(사회자본) 영역과 주관적 행복의 상호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변수의 설정은 지난 2년간의 행복연구연구의 결과와 전문가와의 워크숍과 자문회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특히, 관련 선행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변수를 설정하여 보편성을 유지하되 충남의 여건을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충남의 특수성을 반영하였다.

〈표 3-1〉 변수의 설정

구분		측정변수	비고
인구학적 변수		- 성별, 연령, 혼인여부, 학력, 종교, 직업, 수입 - 지역(아산시, 홍성군, 태안군)	- 분석의 독립변수로 활용 - 충남 지리적 특성 반영
사회 자본	신뢰	- 주변사람에 대한 신뢰 - 공무원 등 특정 집단에 대한 신뢰	- 사회자본의 측정 지표 - 분석의 독립 변수
	참여와 네트워크	- 선거참여 - 사회참여 - 공동체 참여 - 자원봉사 참여 - 취미모임 참여	
	소속감	- 마을 및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규범	- 공공 법규의 준수 여부 -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	
	호혜성	- 가족과의 관계 -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 - 사회적 관계	
주관적 행복도	삶의 만족도	-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	분석의 종속변수로 활용
	긍정적 감정	- 긍정적, 부정적 정서에 대한 경험 여부	
	미래 행복 예감	- 주관적 행복 관점에서 개인의 가치관이나 미래에 대한 희망정도	

## 2) 측정 방법

충남도민의 사회자본 및 지역공동체와 행복도에 관한 조사는 충남도민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서로 믿고 협력하는 행복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내용들을 조사하였다. 본 조사는 2014년 5월 10일부터 20일까지 약 10일간 총 66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지역은 아산시와 홍성군, 태안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각 50% 수준을 유지하였다.

조사를 위한 일반사항을 살펴보면 연령대는 40대가 27.2%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23.2%, 30대 21.9% 순으로 나타났으나 대체로 비슷한 비율로 조사되었다. 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졸업이 42.9%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교 26.2%, 중학교 21.2%로 조사되었으며 직업별로는 농업 40.5%, 서비스직 19.4%, 일반사무직 16.5%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의 특성상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반영하여 혼인상태와 종교 그리고 가족의 수입상태에 대하여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3-2>과 같이 정리되었다.

<표 3-2> 응답자 특성

성별 명(%)	남자	330(50.0)	거주지 명(%)	아산시	220(33.3)
	여자	330(50.0)		홍성군	220(33.3)
연령 명(%)	20대	(13.6)		혼인상태 명(%)	태안군
	30대	(21.9)	기혼		535(81.1)
	40대	(27.2)	미혼		104(15.8)
	50대	(23.2)	이혼		10(1.5)
	60대 이상	(14.1)	사별		11(1.1)
학력 명(%)	초졸 이하	56(8.5)	종교 명(%)	불교	72(10.9)
	중학교 졸업	140(21.2)		개신교	145(22.0)
	고등학교 졸업	283(42.9)		천주교	71(10.8)
	대학교 졸업	173(26.2)		기타	
	대학원 졸업 이상	8(1.2)		없음	372(56.4)

직업 명(%)	전문직/ 자유직	일반사무직/ 관리직	판매직/ 서비스직	생산직/ 기술직	농림/어업/ 축산업
	10(1.5)	109(16.5)	128(19.4)	24(3.6)	267(40.5)
	학생	가정주부	무직/은퇴	군인	기타
	16(2.4)	98(14.8)	8(1.2)		
가족수입 명(%)	100만원 이하	101-200만원	201-300만원	301-400만원	
	10(1.5)	109(16.5)	204(30.9)	174(26.4)	
	401-500만원	501-600만원	601-700만원	701만원 이상	
	100(15.2)	45(6.8)	11(1.7)	7(1.1)	

### 3) 측정 결과

#### ① 신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여부에서 상황에 따라 믿는 수준이 다르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48.63%로 가장 많았으며 믿을 때 조심스럽다는 의견이 27.6%, 대부분 믿을만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9.8%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 타인에 대한 믿음

타인 신뢰 명(%)	대부분 믿을만하다	믿을 때 조심스럽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대부분 믿을 수 없다
	131(19.8)	182(27.6)	319(48.3)	28(4.2)

특정 집단에 대한 신뢰도의 경우 이웃이나 직장 동료 등 지역공동체에 대한 신뢰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공무원 및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주변의 이웃에 대한 신뢰도는 비교적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79.2%로 나타났으며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0.5%에 불과하였다. 개인적 모임이나 직장 동료들에 대하여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95.9%로 높게 나타난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

은 0.2%로 낮게 나타났으며 이용하고 있는 상점, 가게 등의 주인이나 점원들에 대하여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47.3%로 나타났으며 신뢰하지 않는 편이라 응답한 비율은 4.4%로 나타났다. 반면 중앙정부의 공무원들과 국회의원과 같은 정치인들에 대하여 신뢰하는 비율은 약 20.5%와 9.8%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오히려 29.5%와 45.3%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 향상이 필요시 되고 있다.

**<표 3-4> 특정 집단에 대한 신뢰도**

항목	전혀 미신뢰	신뢰하지 않는편	그저 그렇다	비교적 신뢰	매우 신뢰	종합	아산	홍성	태안
1) 주변의 이웃		3 (0.5)	134 (20.3)	456 (69.0)	67 (10.2)	3.89	3.86	3.88	3.93
2) 각종 모임이나 직장 동료들		1 (0.2)	26 (3.9)	633 (95.9)		3.96	3.95	3.95	3.96
3) 주로 이용하시는 상점, 가게 주인이나 점원들		29 (4.4)	319 (48.3)	277 (42.0)	35 (5.3)	3.48	3.56	3.54	3.36
4) 지역의 파출소 및 경찰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3 (0.5)	88 (13.3)	242 (36.7)	316 (47.9)	11 (1.7)	3.37	3.48	3.35	3.28
5) 중앙정부의 공무원들	10 (1.5)	185 (28.0)	330 (50.0)	133 (20.2)	2 (0.3)	2.90	3.07	2.93	2.69
6) 국회의원과 같은 정치인들	42 (6.4)	257 (38.9)	296 (44.8)	65 (9.8)		2.58	2.75	2.59	2.40

② 참여

다음은 지난 1년간 주민들이 참여한 사회활동과 네트워크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최근 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 등)시 투표 경험에 대하여 모두 참여한 비율이 약 60.5%로 나타났으며 미 참여한 경우는 2.0%로 나타났다.

**<표 3-5> 최근 투표 참여 여부**

투표참여 여부 명(%)	모두 참여	미 참여 경우 존재	모두 미 참여
	399(60.5)	248(37.6)	13(2.0)

지역적 활동의 참여조사결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원서/탄원서 제출 또는 서명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정치적 모임, 시가행진 등과 같은 활동과 지역단체의 위원이나 대표활동 등에 대한 참여여부 조사결과 대부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6> 지역적 사회활동 참여 여부**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합
1)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원서/탄원서 제출 또는 서명운동	358 (54.2)	126 (19.1)	176 (26.7)	660 (100.0)
2) 정당의 전당대회 등과 같은 정치적 모임과 행사	548 (83.0)	80 (12.1)	32 (4.8)	660 (100.0)
3) 시가행진, 시위(촛불시위) 등과 같은 활동	583 (88.3)	66 (10.0)	11 (1.7)	660 (100.0)
4) 지역단체의 위원이나 대표(주민자치위원회, 통반장, 이장 등) 활동	498 (75.5)	113 (17.1)	49 (7.4)	660 (100.0)

지역주민들의 시민단체 활동 참여에 대한 조사결과 몇 가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지역 및 개인차원 활동의 경우 참여경험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국적 규모의 단체 참여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개인적 친목을 위한 단체 활동의 경우 참여율이 높으나 그 외 특수 목적이나 전국적 성격의 단체활동은 매우 참여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3-7> 단체활동 참여 여부

항 목	종합		아산		홍성		태안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1) 자원봉사단체(전국재해구호협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적십자사 등 )	283 (42.9)	377 (57.1)	88 (40.0)	132 (60.0)	79 (35.9)	141 (64.1)	116 (52.7)	104 (47.3)
2) 스포츠, 문화예술, 취미관련 동호회(각종 여가문화 모임)	325 (49.2)	335 (50.8)	114 (51.8)	106 (48.2)	88 (40.0)	132 (60.0)	123 (55.9)	97 (44.1)
3) 각종 친목회 및 계모임	622 (94.2)	38 (5.8)	212 (96.4)	8 (3.6)	201 (91.4)	19 (8.6)	209 (95.0)	11 (5.0)
4)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527 (79.8)	133 (20.2)	173 (78.6)	47 (21.4)	170 (77.3)	50 (22.7)	184 (83.6)	36 (16.4)
5) 전우회, 재향군인회	2 (0.3)	658 (99.7)	1 (0.5)	219 (99.5)	1 (0.5)	219 (0.5)	0 (0.0)	220 (100)
6) 자녀 학교모임, 학부모회	131 (19.8)	529 (80.2)	40 (18.2)	180 (81.8)	46 (20.9)	174 (79.1)	45 (20.5)	175 (79.5)
7) 직능단체, 협회(상인회, 공제조합)	158 (23.9)	502 (76.1)	55 (25.0)	165 (75.0)	50 (22.7)	170 (77.3)	53 (24.1)	167 (75.9)
8) 전국 규모의 국민운동단체(새마을,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33 (5.0)	627 (95.0)	15 (6.8)	205 (93.2)	7 (3.2)	213 (96.8)	11 (5.0)	209 (95.0)
9) 전국 규모의 시민사회단체(환경연합, 경실련, YMCA, 참여연대 등)	26 (3.9)	634 (96.1)	12 (5.5)	208 (94.5)	6 (2.7)	214 (97.3)	8 (3.6)	212 (96.4)
10) 종교관련 활동(봉사모임, 성경모임 등)	185 (28.0)	475 (72.2)	63 (28.6)	157 (71.4)	52 (23.6)	168 (76.4)	70 (31.8)	150 (68.2)
11) 정치 조직, 정당	45 (6.3)	615 (93.7)	20 (9.1)	200 (90.9)	14 (6.4)	206 (93.6)	11 (5.0)	209 (95.0)
12) 노동조합	25 (3.8)	635 (96.2)	8 (3.6)	212 (96.4)	6 (2.7)	214 (97.3)	11 (5.0)	209 (95.0)
13) 지역풀뿌리조직(지역환경 관련 모임, 공동육아, 생협, 지역시민단체)	84 (12.7)	576 (87.3)	30 (13.6)	190 (86.4)	21 (9.5)	199 (90.5)	33 (15.0)	187 (85.0)

주민들의 마을회의 등 주민자치를 위한 활동 참여에 대한 조사결과 절반 이상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62.1%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3-8> 마을회의 참여 여부**

마을회의 참여 명(%)	전혀 미 참여	거의 미 참여	절반 참여	거의 참여	매회 참여
	106(16.1)	144(21.8)	179(27.1)	206(31.2)	25(3.8)

주민들의 지역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여부에 대하여 매우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없었으며 반면 참여 비율 중 연 1-2회 정도 참여하는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혀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5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9>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

속성	전혀 없다	1~2회	수차례 (월 1회 미만)	매월 1회 이상	매주 한번 이상
1) 사회복지와 관련된 봉사활동(노인, 저소득층 등)	375 (56.8)	237 (35.9)	43 (6.5)	5 (0.8)	
2) 지역사회 주민 봉사활동(문화, 학교봉사)	328 (49.7)	274 (41.5)	53 (8.0)	5 (0.8)	
3) 지난 1년간 참여했던 모든 자원봉사활동	309 (46.8)	251 (38.0)	86 (13.0)	14 (2.1)	

주민들의 지난 1년간 지역적 친목활동 참여에 대한 조사결과 지역행상의 경우 연 1-2회 수준이 가장 많았으며 친목 및 오락/취미/여가 등을 위한 모임의 경우 월 1회 미만으로 수차례의 모임에 참석하고 있으며 직장동료와의 사교모임의 경우 연 1-2회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매주 한 번 이상 참여하는 모임은 거의 없었으며 단체 및 클럽 등의 모임에 있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과 직장동료와의 사교모임에 있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10〉 지난 1년간 지역적 친목활동 참여 여부

속성	전혀 없다	1~2회	수차례 (월 1회 미만)	매월 1회 이상	매주 한번 이상
1) 지역사회 행사(지역축제, 음악회 등)	106 (16.1)	460 (69.6)	83 (12.6)	11 (1.7)	
2) 단체 및 클럽 모임(취미, 사회단체 등)	221 (33.5)	215 (32.5)	168 (25.5)	56 (8.5)	
3) 친구들과의 친목 및 오락/취미/여가 모임	16 (2.4)	129 (19.5)	323 (48.9)	184 (27.9)	8 (1.2)
4) 동거하고 있지 않은 가족 및 친척 모임	23 (3.5)	398 (60.3)	202 (30.6)	37 (5.6)	
5) 직장 동료와의 업무 이외의 사교 모임	171 (25.9)	212 (32.1)	185 (28.0)	92 (13.9)	

③ 호혜와 규범

다음은 지역에 대한 호혜와 규범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가족, 동네, 지역, 충남도, 국민이라는 모든 영역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가족에 대한 긍정적 의견은 96.4%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동네에 대한 중요성도 79.5%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 및 우리 사회에 대한 법규 준수와 부정부패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 공공법규 준수 여부에 대하여 긍정적인 응답은 40% 전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부정부패에 대하여는 반대 현상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약 40% 전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쉽게 넘기지 말아야 할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3-11〉 지역에 대한 중요성 인식

속성	매우 부정	부정	보통	긍정	매우 긍정	종합	아산	홍성	태안
1) 우리 가족은 나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			24 (3.6)	326 (49.4)	310 (47.0)	4.43	4.38	4.43	4.50
2) 우리 동네에 산다는 것은 나에게 중요한 사실이다	2 (0.3)	29 (4.4)	104 (15.8)	394 (59.7)	131 (19.8)	3.94	3.93	3.95	3.95
3) 우리 시군(홍성, 태안, 아산)에 사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2 (0.3)	33 (5.0)	256 (388)	251 (38.0)	118 (17.9)	3.68	3.64	3.71	3.69
4) 충청남도에서 사는 것은 나에게 중요한 사실이다.	1 (0.2)	37 (5.6)	268 (40.6)	237 (35.9)	117 (17.7)	3.65	3.59	3.72	3.65
5)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사실은 나에게 중요하다.	1 (0.2)	12 (1.8)	193 (29.2)	302 (45.8)	152 (23.0)	3.89	3.80	4.02	3.87

〈표 3-12〉 공공법규 준수 및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

속성	매우 부정	부정	보통	긍정	매우 긍정	종합	아산	홍성	태안
1) 우리 지역 사람들은 공공 법규를 잘 지키는 편이다	10 (1.5)	148 (22.4)	228 (34.5)	241 (36.5)	33 (5.0)	3.21	3.24	3.22	3.17
2) 우리사회는 전반적으로 공공 법규를 잘 지키는 편이다	14 (2.1)	148 (22.4)	272 (41.2)	207 (31.4)	19 (2.9)	3.10	3.19	3.07	3.06
3) 지역사회에서의 부정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다.	7 (1.1)	142 (21.5)	245 (37.1)	251 (38.0)	15 (2.3)	3.19	3.11	3.24	3.22
4) 우리사회 전체적으로 부정부패는 심각하다	1 (0.2)	103 (15.6)	286 (43.3)	228 (34.5)	42 (6.4)	3.31	3.28	3.33	3.34
5) 부정부패는 척결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눈감아 주어야 할 때도 있다.	198 (30.0)	329 (49.8)	130 (19.7)	3 (0.5)		1.90	1.87	1.82	2.02

〈표 3-13〉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

속성	매우 부정	부정	보통	긍정	매우 긍정	종합	아산	홍성	태안
1. 나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충분하다	12 (1.8)	188 (28.5)	145 (22.0)	230 (34.8)	85 (12.9)	3.28	3.26	3.19	3.40
2. 나는 가족 관계에 만족 한다		58 (8.8)	155 (23.5)	349 (52.9)	98 (14.8)	3.74	3.76	3.74	3.71
3. 우리 가족은 서로 갈등이 없는 편이다		4.9 (7.4)	209 (31.7)	321 (48.6)	91 (12.3)	3.66	3.59	3.68	3.70
4. 우리 마을 사람들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7 (2.6)	300 (45.5)	308 (46.7)	35 (5.3)	3.55	3.51	3.57	3.55
5. 나는 사회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 (0.2)	16 (2.4)	257 (38.9)	346 (52.4)	40 (6.1)	3.62	3.57	3.69	3.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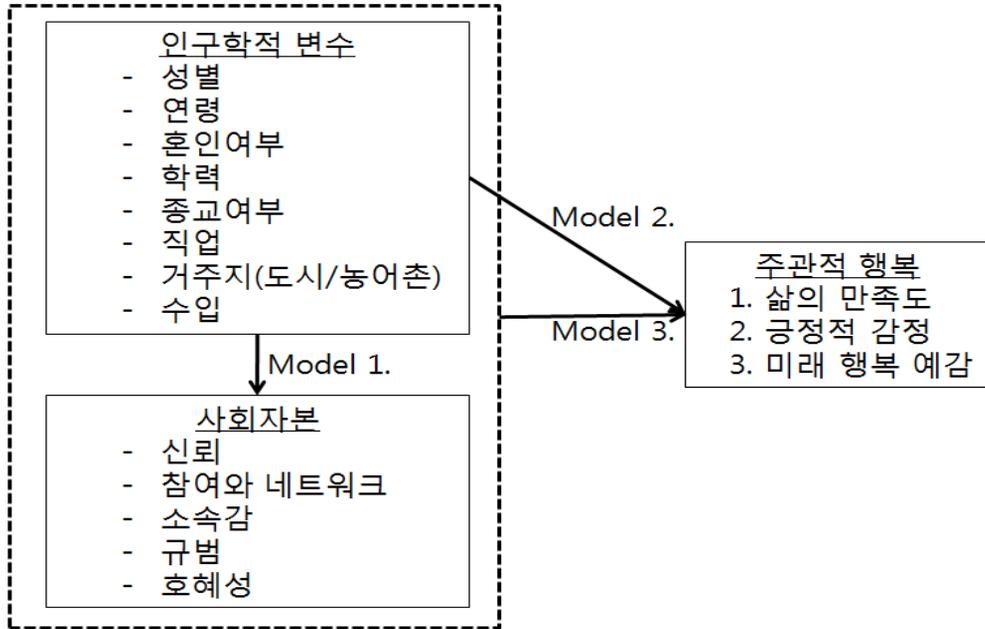
주민들의 행복에 대한 의식조사결과 현재 삶에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57.1%인 반면 부정적 견해는 약 7%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부정적 감정보다 긍정적 감정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약 58.2%로 부정적 견해인 약 7.5%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향후 더 행복해 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비율도 약 61.8%로 부정적 견해인 7.4%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행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14〉 삶의 만족도와 행복에 대한 기대

속성	매우 부정	부정	보통	긍정	매우 긍정	종합	아산	홍성	태안
1. 나의 삶에 만족한다	1 (0.2)	45 (6.8)	237 (35.9)	324 (49.1)	53 (8.0)	3.58	3.55	3.55	3.74
2. 나는 부정적 감정(슬픔, 불안 등)보다 긍정적 감정(행복, 즐거움 등)을 많이 느낀다	5 (0.8)	44 (6.7)	227 (34.4)	328 (49.7)	56 (8.5)	3.58	3.70	3.54	3.75
3. 나는 지금까지보다 앞으로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49 (7.4)	203 (30.8)	295 (44.7)	113 (17.1)	3.72	3.74	3.75	3.65

## 2. 사회자본과 행복도의 상호 영향 분석

### 1) 분석의 결과



<그림 3-1> 분석 모형

행복의 2가지 영역의 공동체(사회자본) 영역과 주관적 행복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기 위하여 위 그림같이 3개의 분석 모델을 설정하였다.

모델 1은 충남의 사회자본의 하부 영역을 6가지로 구성해서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인구학적인 변수가 충남의 사회자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모델 2은 주관적 행복도를 종속변수로 인구학적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모형을 설정하여 인구학적인 변수가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한편 모델3은 행복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인구학적인 변수 사회자본(신뢰), 사회자본(참여와 네트워크), 사회자본(소속감), 사회자본(규범), 사회자본(호혜)를 각각의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1의 경우 각 독립변수 중 그룹화 할 수 있는 변수는 모두 그룹화하여 더미를 만들어 (예를 들어 직업을 취업여부로 간략화)를 나누어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의 경우는 각각 신뢰, 소속감, 규범, 호혜성, 참여, 네트워크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총 6번의 회귀분석이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각각 다음과 같다.

**<표 3-15> 인구학적 변수와 신뢰의 관계**

Model 1-1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Constant)	2.808	.435		6.450	.000
	연령	.001	.002	.035	.540	.590
	월소득	.058	.018	.189	3.256	.001
	전문직 _ 사무직	-.155	.411	-.133	-.376	.707
	판매직 _ 서비스직	-.163	.407	-.151	-.401	.689
	생산직 _ 기술직	-.231	.425	-.092	-.543	.587
	농어업	-.337	.404	-.386	-.834	.405
	학생 _ 주부	-.135	.405	-.153	-.333	.739
	혼인여부	-.041	.066	-.039	-.622	.534
	종교여부	.039	.045	.047	.860	.390
	도시여부	.080	.047	.091	1.697	.091

신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주로 월소득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충남의 경우 연령, 직업의 종류, 혼인여부, 종교, 도시 거주 여부에 상관없이 월 소득이 높을수록 사회와 타인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3-16〉 인구학적 변수와 소속감의 관계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1	(Constant)	1.349	.643		2.099	.037
	연령	.006	.003	.125	1.909	.057
	월소득	.074	.026	.161	2.797	.005
	전문직 _ 사무직	1.969	.607	1.140	3.245	.001
	판매직 _ 서비스직	1.719	.601	1.074	2.859	.005
	생산직 _ 기술직	1.581	.628	.423	2.518	.012
	농어업	1.745	.597	1.344	2.922	.004
	학생 _ 주부	1.884	.597	1.445	3.155	.002
	혼인여부	.121	.098	.077	1.239	.216
	종교여부	.192	.066	.157	2.903	.004
	도시여부	-.040	.069	-.031	-.579	.563

사회자본의 하위 요소 중 소속감에 영향을 주는 인구학적인 요인은 월소득이 높은 경우, 어떤 직업을 갖는지 직업이 없는 경우보다 직업이 있는 경우, 종교가 없는 경우보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자신이 집단에 소소속해 있다는 소속감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3-17〉 인구학적 변수와 규범의 관계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1	(Constant)	2.499	.433		5.765	.000
	연령	.006	.002	.175	2.589	.010
	월소득	.038	.018	.127	2.140	.033
	전문직 _ 사무직	.138	.409	.122	.337	.736
	판매직 _ 서비스직	.236	.405	.226	.582	.561
	생산직 _ 기술직	.176	.423	.072	.416	.678
	농어업	.127	.403	.150	.315	.753
	학생 _ 주부	.168	.403	.197	.416	.678
	혼인여부	-.144	.066	-.141	-2.190	.029
	종교여부	-.012	.045	-.015	-.271	.787
	도시여부	-.012	.047	-.015	-.263	.793

충남도민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월소득이 높을수록 자신이 속한 집단의 규범의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 3-18> 인구학적 변수와 호혜성과의 관계**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1	(Constant)	5.341	2.385		2.240	.026
	연령	-.007	.012	-.037	-.582	.561
	월소득	.297	.098	.173	3.046	.003
	전문직 _ 사무직	-1.302	2.251	-.200	-.578	.564
	판매직 _ 서비스직	-1.221	2.230	-.202	-.548	.584
	생산직 _ 기술직	-2.050	2.328	-.145	-.880	.379
	농어업	.065	2.215	.013	.029	.977
	학생 _ 주부	-1.044	2.216	-.212	-.471	.638
	혼인여부	.628	.363	.106	1.732	.084
	종교여부	-.119	.246	-.026	-.485	.628
	도시여부	.242	.257	.050	.942	.347

충남의 사회자본 구성 요소 중 호혜성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월소득이 높을수록 호혜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3-19> 인구학적 변수와 참여와의 관계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1	(Constant)	1.544	.268		5.762	.000
	연령	.004	.001	.182	3.050	.002
	월소득	.042	.011	.201	3.826	.000
	전문직 _ 사무직	-.027	.253	-.035	-.109	.914
	판매직 _ 서비스직	-.097	.251	-.133	-.389	.697
	생산직 _ 기술직	-.087	.262	-.051	-.334	.739
	농어업	.105	.249	.177	.423	.673
	학생 _ 주부	-.040	.249	-.067	-.160	.873
	혼인여부	.130	.041	.182	3.193	.002
	종교여부	-.018	.028	-.033	-.660	.510
	도시여부	.024	.029	.041	.843	.400

충남도민의 경우 사회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경제적 소득, 혼인여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비혼 보다는 결혼한 사람들이 사회참여에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20> 인구학적 변수와 네트워크와의 관계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1	(Constant)	2.146	.592		3.622	.000
	연령	.004	.003	.095	1.448	.149
	월소득	.074	.024	.176	3.041	.003
	전문직 _ 사무직	1.030	.559	.649	1.841	.067
	판매직 _ 서비스직	.811	.554	.552	1.464	.144
	생산직 _ 기술직	.766	.579	.223	1.324	.186
	농어업	.796	.550	.668	1.447	.149
	학생 _ 주부	.976	.551	.814	1.772	.077
	혼인여부	.169	.090	.117	1.873	.062
	종교여부	.061	.061	.054	.996	.320
	도시여부	-.157	.064	-.132	-2.460	.014

충남도민의 경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는 소득과 도시거주여부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 보다 더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와 같은 모델 1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충청남도의 사회자본의 하위 요소에 미치는 주요 요인은 각각의 하위요소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공통적으로는 경제적 요인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충남도민의 주관적 행복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21> 인구학적 변수와 행복도의 관계**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1	(Constant)	2.254	.688		3.276	.001
	연령	.002	.004	.037	.598	.551
	월소득	.189	.028	.370	6.699	.000
	전문직 _ 사무직	.823	.649	.427	1.268	.206
	판매직 _ 서비스직	.479	.643	.268	.744	.457
	생산직 _ 기술직	.534	.672	.128	.795	.427
	농어업	.593	.639	.409	.927	.354
	학생 _ 주부	.744	.639	.512	1.164	.245
	혼인여부	.008	.105	.005	.077	.939
	종교여부	-.089	.071	-.066	-1.261	.208
	도시여부	-.027	.074	-.019	-.362	.718

충남도민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도와 사회인구학적 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회귀분석에서 유의미한 결과는 영향을 주는 것은 경제적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22>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종합

Model3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Constant)	-.770	.557		-1.382	.168
연령	-.004	.003	-.073	-1.610	.108
월소득	.097	.021	.191	4.620	.000
전문직 _ 사무직	-.039	.464	-.020	-.084	.933
판매직 _ 서비스직	-.221	.458	-.124	-.482	.630
생산직 _ 기술직	-.079	.477	-.019	-.165	.869
농어업	-.159	.455	-.110	-.349	.728
학생 _ 주부	-.087	.456	-.060	-.191	.849
혼인여부	-.132	.076	-.075	-1.741	.083
종교여부	-.140	.051	-.103	-2.768	.006
도시여부	.064	.053	.044	1.198	.232
사회자본 _ 신뢰	.067	.064	.040	1.053	.293
사회자본 _ 소속감	.106	.051	.095	2.101	.036
사회자본 _ 규범	.267	.063	.156	4.226	.000
사회자본 _ 호혜성	.030	.012	.102	2.571	.011
사회자본 _ 참여	.297	.106	.122	2.812	.005
사회자본 _ 네트워크	.654	.054	.539	12.044	.000

모델 3의 분석, 즉 충남도민의 주관적 행복감의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사회인구학적변수와 사회자본의 6개의 하위영역을 독립변수로 해서 종합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충남도민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에는 경제적 요인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월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주관적 행복감,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3. 사회자본과 행복의 상호 영향 분석의 의미

충남의 다른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는 낮은 편이다. 전적으로 믿을 만한 비율이 응답은 20%이하로 나타났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의견이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이와 특정집단에 대한 신뢰를 물어보았을 때, 이웃, 직장동료, 지역공동체에 대한 신뢰는 높은 반면 공무원 및 정치에 대한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지난 1년간 선거에 참여한 비율은 60%대로 전국의 평균을 약간 상회하고 있다. 지역 사회의 정치적 문제에 대한 참여는 매우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의 활동에의 참여는 개인 차원의 활동은 비교적 높으나, 전국적 차원의 단체 활동은 비교적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전반적으로 사회의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민은 가족, 동네, 지역, 충남도, 한국에 소속감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규범을 나타내는 공공법규의 준수와 부정부패의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가족과 지역사회의 호혜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행복감, 긍정적 감정을 느끼는 정도, 미래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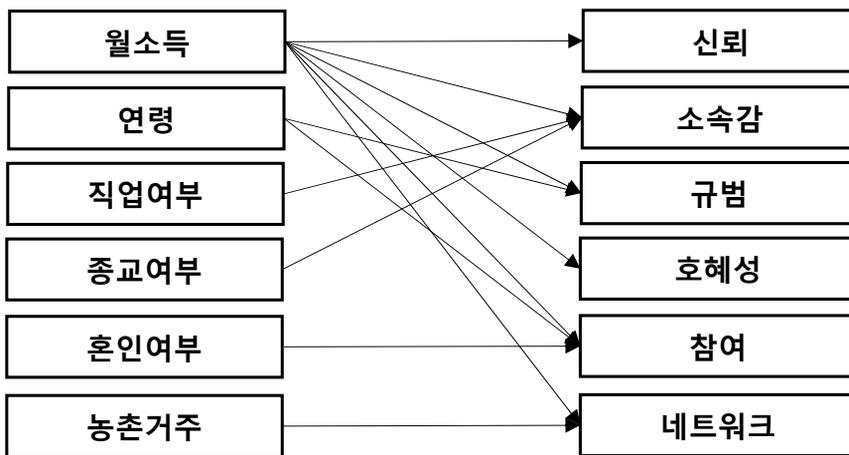


<그림 3-2> 사회자본의 순환 모델

일반적으로 사회자본은 위 그림과 같은 순환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충남도의 사회자본의 실태를 살펴보면 신뢰, 네트워크, 참여의 항목의 사회자본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드러나서 효과적 사회자본의 선순환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한 악순환의 고리에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구학적인 변수와 사회자본, 주관적 행복감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세 가지 모델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사회인구학적인 변수와 사회자본과의 관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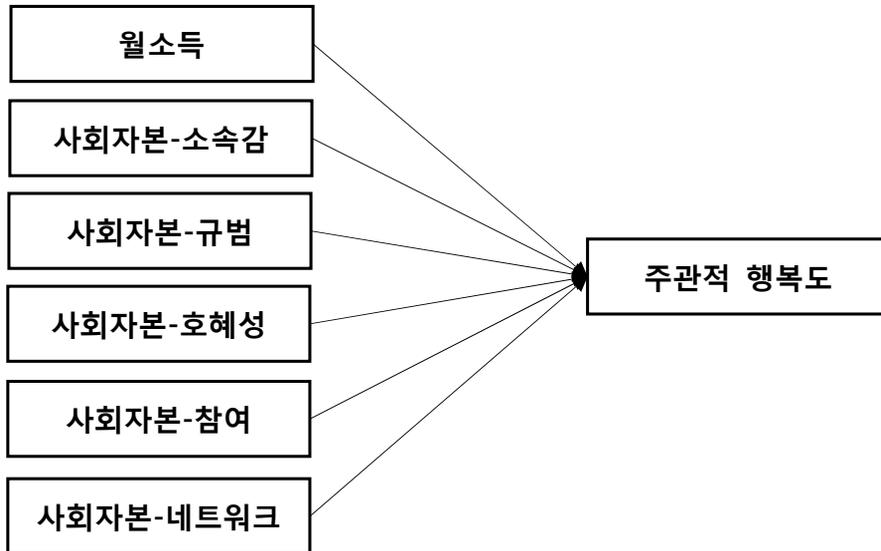
<그림 3-3>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사회자본의 관계

②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주관적 행복도 관계 분석



<그림 3-4>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행복도

③ 충남도민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종합



<그림 3-5> 주관적 행복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3의 자본이라고 불리는 사회자본을 6가지 하위차원으로 구분하여 이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찾아내기 위해 사회인구학적인 변수를 독립 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신뢰의 영향을 주는 요인은 경제적 요인인 월소득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경제적 요인의 월소득은 사회자본의 모든 하위 차원의 영역(신뢰를 포함하여 소속감, 규범, 호혜성, 참여, 네트워크)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밖에 연령 요인은 사회자본 중 규범과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자신이 속한 집단이 규범을 잘 지키는 것으로 인지하고, 자신이 사회적 참여에 적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직업과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신이 속한 집단에 소속감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혼인을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사회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가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분석은 충남의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충남은 북부권을 중심으

로 급격한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이동이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사회관계의 방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연줄망보다는 돈을 매개로 하는 경제적 관계가 가장 중요한 사회관계의 매개요인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충남의 전통적인 사회관계가 산업화되고 도시화된 사회의 새로운 사회관계, 즉 뒤르케임이 이야기 하는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유기적 연대의 관계로 완전히 변화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령, 혼인 여부와 같이 전통적이 관계에 기반한 요인이 미미하지만 사회자본의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된 것으로 보아 충남은 전통적인 사회적 관계가 아직도 사회자본의 형성에 의미 있는 요소로 남아있기도 하다.

따라서 충남은 산업화되고 도시화된 사회관계의 대표적인 지표인 경제적 요인이 중요이기는 하지만 전통적 사회관계가 사회자본의 형성에 의미 있는 요소로 남아 있는 과도기적인 사회로 보인다. 이러한 과도기적인 상태의 충남에서는 사회발전과 사회적 관계 형성의 중요한 기제인 사회자본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사회관계의 장점과 다양성이 증대된 사회관계의 장점을 모두 잘 살릴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다른 측면으로 바라보면 색다른 추론이 가능하다. 경제적 자본을 많이 소유한 사람일수록 사회자본의 풍부하다는 것을 분석의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이는 경제적 자본을 소유한 사람이 사회적 자본까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불평등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일수록 사회자본이 낮은 이중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은 사회자본에서의 소외를 초래하고 이는 다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환원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주관적 행복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아내기 위해 사회인구학적인 변수(모델 2),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사회자본을 독립변수로 하는 분석(모델 3)을 실시하였다. 사회인구학적인 변수 중에 주관적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있는 변수는 경제적 요인(월소득)이었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충남도민의 주관적 행복도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사회자본을 독립변수로 주관적 행복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

였는데, 경제적 요인(월소득)과 사회자본의 6개 하위 요소 중, 신뢰를 제외한 소속감, 규범, 호혜성, 참여, 네트워크 등 5개 변인이 주관적 행복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신뢰는 경제적 요인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보이고 있어 최종분석에서는 그 효과가 사라진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경제적 요인이 설명력이 높은 지표이기 때문에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충남의 경우 전반적으로 사회자본의 축적이 낮고, 경제적 불평등이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사회자본의 축적이 낮고, 이는 주관적 행복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충남의 경우 도민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정책을 펼칠 경우 도식적으로 도농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을 펼칠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정책을 펼치고, 또한 지역에 따라 사회자본의 축적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회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제4장 지역의 사회자본 변동에 대한 마을조사

### 1. 충청남도 농촌지역 현지 조사-홍성 3개 마을

#### 1) 조사 개요

충청남도 농촌지역 현지 조사는 충남의 ‘생명존중 행복마을’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작년까지 시범사업이 진행되었던 3개 마을에서 실시되었다. 이 3개 마을을 현지조사의 대상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 지역이 시범사업이 시작되기 직전에 마을에서 자살, 특히 노인 자살 사건이 많이 일어났던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 대한 조사는 2013년 충남발전연구원 전략과제인 “충청남도 자살 실태분석 및 예방정책 연구”의 일환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던 지역이다. 2013년 자살예방연구에서 자살이라는 현상을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현상만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가 변동하여 사회적 지지망이 상실되는 현상으로 바라보았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망의 소실은 대표적인 사회자본의 급격한 변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3개 마을의 현지 조사를 통해 급격한 사회자본의 소실의 양상과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 충청남도 홍성군 생명사랑 행복마을 시범사업이 진행되었던 3곳(천태1구, 행정 2구, 화산마을)에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은 진행했던 충남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의 자살예방팀의 도움으로 진행되었다. 각 마을마다 마을이장 등 현지주민 7~10명 등과 간담회 및 개별 면접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개별 면접을 실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충남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의 담당자에게 참여 마을의 상황 청취
- 마을 주민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최근 마을의 상황과 사회적 관계망의 변동에 대해 청취
- ‘생명사랑 행복마을’ 마을 운영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 정책의 실제 운영상황, 효과와 한계 청취

## 2) 조사내용

### ① 충남 홍성군 천태1구 마을

천태 1구의 마을 규모는 50호 정도 100여명 거주하고 있다. 최근 마을주민의 밖으로 이주 없었고, 다만 자녀만 외지로 나가 공부하거나 취업하였다. 그리고 외지로부터 8집이 귀농하여 같은 마을에 살고 있으나, 한 가구를 제외하고는 마을 사람들과의 교류는 전무한 형편이다. 주민 중 최고령 94세이고, 최연소 54세이다. 마을은 주로 벼농사를 짓고 있고,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가난한 마을은 아니라고 한다. 마을 간담회는 이장 등 총 6명 참여 간담회와 이어서 여성 주민들의 간담회로 진행되었다. 남성 주민들로 이루어진 간담회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마을은 대부분의 농촌마을이 처해 있는 현실과 같이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마을이다. 더욱이 이러한 고령인구의 절반 이상히 혼자 살아가는 단독가구라고 마을 주민들은 말하고 있다. 이러한 홀로 사는 노인들은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은 노령으로 인한 지병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생계를 농토의 임대료와 자식의 용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마을 사람들과의 모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모이면 나가서라도 점심값이라도 내야 되는데 (음질불량) 남한테 맨날 얻어먹을 수도 없고, 그런데 딱 빠지다 보니까 소외되는 거지. 우리 동네 같은 경우도 아줌마, 남자들이 4~5명이 클럽이 되다시피 해서 오늘은 내가 콩국수 살테니 가하면 우루루 가서 먹고 와 그럼 그 다음 사람이 사면 가”

위에 구술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노인들을 마을사람들과의 비공식 모임의 참여에도 어려움은 겪는다. 모임에 참여하려는 최소한의 경제적 기여를 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임에도 소외되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아주 기본적인 농사라던가, 집안일은 마을의 이장이나 청년, 부녀회에서 도와주기도 하는데, 이것도 농번기에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으로 보인다.

마을의 노령화는 또 다른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야기하기도 한다. 농촌지역의 시골마을은

중심에 학교가 있는데,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 운동회는 마을의 사회자본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을의 노령화 이후에는 운동회마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운동회는 하는데 지금은 학부형이 없으니까, 뭐 동문이랑 분교랑 합쳐도 50명 조금 넘는데 여기는 분교고 본교는 소재지에 있는데 합쳐봤자 60명밖에 안돼요. 노인이 과반수니까”

이러한 마을사람들은 증언은 이 마을이 처한 상황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마을은 흥성에서도 마을 가장 오지 마을이라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외지로 나가고 대부분이 노인들이 거주하는 상황에서 활발한 사회적 관계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의 단절 현상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난다. 자녀들은 대부분 외지에 나가 있는데, 마을주민들은 자녀들이 너무 착해 그것이 마을의 복이라고도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 자녀들과의 관계가 그리 원만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할머니 한 분 계셔. 80쯤 넘으셨어. 아들 딸 7남매데 다 시집가 버리고 객지 나가있어. 아들, 딸들이 추석이고 제사 때 와서 용돈을 10~ 20 주잖아. 그리고 돈 쓰다보다가 돈이 줄었어? 그럼 아프기 시작 한 거야 막 머리도 아프고, 심장이 뼉다는 등. 그럼 내가 아들 오면 내가 돈 좀 더 드려해. 아플 일 없다고”

대부분의 자녀들이 외지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자녀들과의 관계의 연결은 명절에 방문과 조금씩 자녀들이 보내주는 용돈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IMF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짐에 따라 이러한 용돈을 주는 빈도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자녀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마을 노인들의 심리적 교감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이 마을에 자살예방 사업이 일환인 ‘생명존중 행복마을’ 시범사업은 마을 주민들에게 활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마을 주민들이 행복마을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이 프로그램이 열리면 마을주민이 다모인다고 이야기 한다.

“매주 금요일 왔지. 여기서는 화요일 날 왔지 오면 건강 체조 또 수지침, 음악, 사물놀이도 가르치고 하니까. 마음이 젊어지는 것 같고 자꾸들 모이니까 그것이 화목이야. 심신이 다 젊어지는 거야. 이 친구는 노인들 몇 년까지 갑니까 하다 말면 내가 판단 생각할 때에는 이 사업을 계속 해야할 것 같아서 지금 건강 체조 맡은 것도 노인회에 건의를 했어 금년 겨울에도 건강체조를 넣어주소 미리 얘기해서 계획에 넣어야 되지”

이처럼 이와 같은 사업은 마을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이 끝난 지금 많은 마을 주민들은 할 일이 없어진 것처럼 허탈해 하는 것 같았다.

## ② 행정 2구

행정 2구는 총 41가구, 80여명이 거주 하고 있는 마을이다. 주민 중 최고령 87세, 최연소 40대이며,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30명, 그래서 전체 중 10가구를 차지하고 있어 비교적 젊은 농촌 마을이다. 마을의 가축(소) 중심 생산활동을 하고 있으며, 얼마 전에 마을에 저수지 생겼다. 저수지 지역이 된 땅은 보상받고 주변의 지가가 상승하였으나 주민들은 이를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다. 이들은 행정2구 마을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이 마을 사람들은 원래 잘 모이지 않고 홀로 지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마을회관 지으면서 모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별로 놀 거리가 없는 상황에서 시범사업이 들어와서 마을사람들이 매우 만족해하고 있었다.

“좋았어요. 그 좋아진 게, 이제 기다려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매주 화요일 날, 한 달에 두 번 아니면 한번 정도, 그 때는 이장님이 방송하시고 노인 양반들에게 계속 주입을 하지요. 잊어버리시니깐, 그날 되면 방송하시고 그러면 나오는데, 좋아하시고 많이 참석하시고, 제일로 좋아하시는 시간이 수지침, 건강, 그런 거 할 때 최고로 많이 오세요. 다른 거 보다는 참석률이 최고로 높아요”

시범사업은 특별히 모일 일이 없었던 마을에 마을단위의 교류가 가능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역으로 생각해보면 시범사업 이전에는 아주 형식적인 만남 이외에 실질적으로 정서를 교감할 수 있는 교류가 부족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 마을은 홍성의 다른 마을과는 달리 비교적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마을이었는데, 마을 주민 중 한명이 축사를 지으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연대보증을 썼다가, 그게 잘못되는 바람에 많은 주민들이 지금까지도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이야기 했다. 이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마을 주민들 간의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래도 빚 같은 거 때문에, 보증서고 그런 거 때문에 자식들이 속 썩이는 것보다도 동네에서 서로 옛날에는 보증 서달라고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좋으신 분들은 해주잖아요. 그러다가 못 갚고 하다면 자기한테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깐 너무 힘들고 그러니깐”

이밖에 생활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겨울의 난방용 ‘기름값이 너무 비싸다’고 응답하였다(1드럼에 27만원. 하지만 이걸로 방 한 칸을 한 달 정도 뻘 수 있음. 따라서 가정집은 못 때고 보일러와 배관 터질까봐 외출로 해놓은 정도, 전기 담료에 의지하여 겨울을 견뎌야 하는 상황). 그래서 겨울에는 마을회관에 모여 주로 생활한다고 하였다(나라에서 회관운영비로 200여만원 나옴). 이와 같은 상황은 이 마을이 처한 상황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③ 화산마을

충남 홍성군 화산마을은 총 48가구, 114명이 거주하는 마을로, 65세 이상 비율이 70% 정도이고 그 중 20호가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마을이다. 최근 마을로 6가구가 귀농하였으나, 이 마을과 연고가 없는 사람들로써 부동산 통해 땅 사서 온 사람들이다. 이들은 원주민들과 잘 어울리려고 하지 않는다고 마을 주민들은 이야기 하고 있다.

마을에서 13농가가 축산업에 종사하지만 소값이 떨어져 소득이 많이 줄어들었고, 나머지 가구는 벼농사, 고추농사 짓고 있다. 그러나 요즘은 벼만 가지고 농가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가축과 같은 부업을 해야 자식들 교육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한다.

이 마을은 특이하게 젊은 이장(57세)이 인터넷을 통해 생명사랑 행복마을 사업을 직접 신청하였고, 다양한 마을 지원 사업에 응모하고 지원을 받고 있다. 그 마을 사람들과의 간담회에서 마을 주민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마을의 노인들이 많은데, 주로 오랜 지병을 앓고 있다. 그런데 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는 경

우가 많다. 경제적 빈곤을 겪는 경우도 많은 것 같으나 말하기 꺼리는 분위기였다. 즉 시골의 자존심 때문에 말하기 꺼리는 것 같았다. 이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죽지는 않는다”라고 굳이 강조하였다.

### 3) 홍성 지역 마을 현지조사로 추론할 수 있는 상황

#### ① 경제적 빈곤

개인적 차원의 단순한 빈곤은 농촌지역의 정서 상(상부상조하여 농사를 지어주고, 상황이 어려운 독거노인은 이장, 청년회, 부녀회 등에서 간간히 돌봐 줄 수 있음) 견딜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빈곤이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외부 경제적 충격과 결합하는 경우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다(IMF 이후 자식들의 경제적 어려움 직면, 연대보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 상황에 처했을 때, 며느리의 죽음으로 아들의 손자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 빠진 경우).

#### ② 사회적 관계의 단절: 노령화, 외로움과 고립

세 마을 모두 시범 사업 이전의 마을 단위의 교류가 드물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세 마을 모두 최근에는 없지만 이농에 따른 빈가구가 많고, 자식들이 외지에 살게 되고 노령화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웃 간의 교류가 줄어들게 되었다. 따라서 마을이 노령화되고, 교류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노년층을 중심으로 외로움과 고립 상태에 놓이고, 사회적 지지망을 갖지 못할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세 마을 모두 시범 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높고, 시범사업으로 마을의 활력을 찾았다고 이야기 하며, 계속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 ③ 지병

마을 자체가 노령화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많은 노인들이 지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그 중 상당수는 경제적 여력이 없고, 마을 가까운 곳에 기초의료시설이 부족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진통제 등의 약물에 의존하여 병을 키우는 악순환 상태에 빠져 있다.

## 2. 충청남도 어촌지역 현지 조사-태안

### 1) 조사개요

충청남도 어촌지역 마을 현지조사는 태안군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태안군은 평범한 어촌 마을로 주로 수산업(농사와 병행)과 관광산업으로 생활을 영위하던 마을이었다. 그러나 2007년 12월 7일 충청남도 태안군 앞바다에서 인천대교 공사를 마친 삼성물산 소속 크레인 부선 '삼성 1호'를 예인선이 경상남도 거제로 끌고가다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정박해 있던 홍콩 선적의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충돌하여 유조선 탱크에 있던 1만 2,547kl(7만 8,918배럴)의 원유가 태안 인근해역으로 유출되는 '2007년 서해안 원유 유출 사고' 혹은 '삼성-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 유출 사고'를 겪은 이후 급격한 사회적 변동을 겪은 지역이다.

이러한 사건은 지역주민들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삶의 주된 터전이었던 바다와 해안이 기름으로 오염되면서 수산과 관광을 주업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의 생존에 위협을 받았고, 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을 양산했다. 마을 현지조사는 이러한 거대한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의 태안군의 주민들의 사회적 관계 양상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태안군의 현지조사는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다만 태안의 유류유출 사건을 생생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 사건 이후에 사회적 변동에 대해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은 '태안군 수산발전협의회' 회원, '태안 유류피해대책위' 관계자, 그리고 '푸른태안 21' 회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그 외 태안군의 공무원, 상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내용을 정리하였다. 내용은 사정 상 녹취록으로 정리되지는 못했고 메모를 통해 내용을 정리하였다.

### 2) 조사 내용

#### ① 보상의 문제에서 갈등과 신뢰 변동

연구자가 만난 모든 태안의 관계자들은 유류유출 사건 이후 보상의 문제로 주민들과의 갈등이 있었다고 이야기 한다. 태안 유류피해로 인한 보상은 크게 3번의 진행되었다. 첫 번째가 사고 이후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해준 것이고, 이후 1차 2차 보상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태안 주민들은 서로 상처를 입고, 갈등을 겪고, 신뢰를 상실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상처는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고, 오히려 8년이 지난 지금 더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보상조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에게 많은 보상이 이루어져서 일반인들의 보상이 어업인의 보상보다도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 한다. 어업, 특히 맨손 어업의 경우 특성 상 피해를 제대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은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긴급생활자금의 보상의 경우에는 주로 이장이나 마을 지도자의 확인으로 진행되었는데, 실제 거주지와 행정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도 있고, 해안마을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해안 마을로 주소지를 옮겨 보상을 받은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장들이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었고 마을 사람들 간의 불신이 쌓이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1, 2차 보상의 경우 소득의 손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업체나 사람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제대로 손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대안으로 맨손어업 면허를 사고 이후에도 신고하여 발급했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면허를 취득하여 보상을 신청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맨손 어업 보상 신청자들은 태안 인구 6만 5천명 중 1만 5천명이 면허를 취득하여 보상을 신청하였다. 이와 같은 수치는 우리나라 전체 맨손어업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12만 7천명인 것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이다. 이와 같은 사태로 인해 주민들 상호간에 신뢰를 사라졌고, 보상의 기준이 '다른 사람보다 적게 받으면 안된다' 즉 보상 기준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보상이 기준이 되는 상대적인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보상과는 별개로 유류피해에 대한 피해 당사자인 삼성출연금이 유류피해에 대한 책임으로 마을 발전기금을 출연하였는데, 이것도 역시 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깊어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삼성중공업 지역발전 출연금은 법적 피해배상과는 별도로 사고 책임당사사자로 별도의 피해 지역 지원 대책을 발표(2008년 2월 29일)하였는데, 삼성과 피해민 단체와의 중재로 국회협의체가 구성되는 3600억원을 출연하기로 합의 하였다. 그러나 삼성의 출연금은 그 구체적인 사용처와 사용주체가 정해지지 않은 채로 출연되었기 때문에 이 출연금의 활용 문제를 가지고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었다.

삼성과의 출연금 협상을 위한 투쟁에는 협조적이던 마을 주민들이 막상 출연금 출연이 확정되자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용 배분과 사용방향을 주장하며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된다. 출연금의 사용은 대외적으로는 피해민을 위해 써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태안 지역의 직업 업종별, 피해민 단체별, 피해민 단체와 공무원 간, 태안군과 다른 시군과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보상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태안 주민들은 서로를 불신하고, 혹은 공동의 문제를 나와 관계없다며 외면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공동의 문제에 무관심하다면 원망하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보상의 문제 이후 태안에서는 호혜보다는 경쟁과 갈등, 그리고 질시가 우세하고, 공동의 이익보다는 개인과 개별집단의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사회변동이 진행되는 경향이 일부 눈에 띈다. 이러한 태안의 현재 상황은 유류 피해로 인한 삶에 터전을 상실하고 경제적 손실을 겪은 것보다, 어쩌면 더 큰 피해인 공동체의 파괴와 사회자본의 소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② 유류유출 사건의 해결과정에서 사회자본의 변동

태안은 유류유출 사건이후 수습과정에서 매 국면마다 새로운 사회자본의 변동과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민들은 공공부문과 정치권, 전문가 집단, 그리고 지역 내부의 집단간 신뢰가 하락하는 과정을 겪는 것으로 면접에서 이야기 되어졌다.

먼저 초기 방제의 대응에서부터 이러한 신뢰의 하락은 시작되었다. 면접자들은 비록 사후적인 문제제기일 가능성이 높지만, 초기 방제과정의 주먹구구식 행정과 전문가 집단의 논리에 대해 믿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초기 방제과정에서 유화제를 바다에 뿌렸는데, 이것은 지나치게 과잉대응 했다는 것이다. 유화제는 필요한 만큼만 적절하게 뿌려졌어야 하는데 보여주기 식으로 지나치게 많이 살포되어 비용대비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이렇게 살포된 유화제가 오히려 태안의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러한 과잉대응과 이에 따른 생태환경의 파괴는 정부와 전문가 집단의 문제 때문이라고 말한다. 정부는 사고 초기에 종합적인 피해 수습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의 대응을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임기응변식 대응은 전문가 집단의 주관적이고 독선적 논리에 기인한다고 말한다. 사고의 수습과정에서 전문가 집단별로 다양한 수습 대책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중 대부분은 태안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전공분야에 한정된 지식을 발표하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발표된 수습대책은 태안을 일종의 거대한 실험장으로 면모시켰고, 그에 따라 복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이야기 한다.

보상의 단계에서도 태안의 주민들은 정부와 전문가 집단의 불신은 증가되었다.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살펴보면 정부가 보상을 우선적으로 책임지는데 반해, 태안의 경우에는 정부가 보상 문제의 책임을 방기하고 민간에 맡겨 둠으로서 갈등을 키웠다는 것이다.

한 태안 주민에 말에 의하면 초기의 보상 문제가 제기 되었을 때, 태안 지역에는 많은 변호사가 들어왔다고 한다. 그 변호사들은 개별적으로 주민들과 접촉하여 자기들이 보상을 많이 받아주겠다고,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상 문제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이들은 보상문제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고, 주민들은 계약금만 날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유류 피해로 인해 삶이 어려운데, 더 어려워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 주민의 말에 의하면 이러한 사태는 주민들의 욕심과 정부가 초기 보상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방치한 것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보상을 위한 라인이 너무 많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정부와 주민들 간의 불신과 갈등을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안의 갈등과 불신의 최근 삼성중공업의 지역발전기금의 문제에서도 재연되고 있다. 주민들의 노력으로 삼성으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것까지는 합의를 했는데, 각종 세금의 문제, 그리고 출연금 수탁의 문제, 피해지역 11개 시군의 분배문제까지 겹치면서 출연금의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삼성출연금의 배분과 활용을 둘러싸고 태안지역과 타지역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고, 수탁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피해민 단체들과 정부의 불신이 초래되고 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을 지고 수탁을 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간단히 해결되는 것인데, 정부는 전례의 문제만을 들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다.

수탁 이후에 활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과 주민, 피해단체와 주민, 지자체와 피해단체와의 갈등과 반목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출연금의 성격을 잘 몰라서 보상금 차원의 배분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지역차원의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고, 보상금의 성격을 알고 있는 피해단체와 지자체는 출연금의 운용 성격과 사업의 진행 방향에서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 3. 충청남도 마을 지역의 조사의 의미

#### (1) 홍성지역 마을 조사

##### ① 경제적 빈곤

개인적 차원의 단순한 빈곤은 농촌지역의 정서 상(상부상조하여 농사를 지어주고, 상황이 어려운 독거노인은 이장, 청년회, 부녀회 등에서 간간히 돌봐 줄 수 있음) 견딜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빈곤이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외부 경제적 충격과 결합하는 경우 마을 주민들은 곤경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IMF 이후 자식들의 경제적 어려움 직면, 연대보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 상황에 처했을 때, 며느리의 죽음으로 아들의 손자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 빠진 경우). 이러한 외부적 상황과 결합된 경제적 빈곤은 주민들의 사회적 관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② 사회적 관계의 단절: 노령화, 외로움과 고립

세 마을 모두 시범 사업 이전의 마을 단위의 교류가 드물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세 마을 모두 최근에는 없지만 이농에 따른 빈가구가 많고, 자식들이 외지에 살게 되고 노령화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웃 간의 교류가 줄어들게 되었다. 따라서 마을이 노령화되고, 교류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노년층을 중심으로 외로움과 고립 상태에 놓이고, 사회적 지지망을 갖지 못할 경우가 많다.

##### ③ 사회적 관계의 활성화를 통한 공동체 회복의 가능성

따라서 세 마을 모두 시범 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높고, 시범사업으로 마을의 활력을 찾았다고 이야기 한다. 세 마을 모두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이나 인적자원 및 네트워크를 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여건이 형성되면 사회관계의 회복과 정서적 교감의 장의 마련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희망과 정책적 지원이 결합된다고 한다면 소외지역의 사회자본 확충이 가능할 것이다.

## (2) 태안지역 마을 조사

### ① 주민 상호간의 갈등의 심화

유류유출 사고 이후 긴급 생활자금의 지원 및 1, 2차 보상을 신청하는 과정에서의 혼란으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개인차원의 욕심도 있지만,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보상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주민들은 서로를 불신하게 되었고, 공동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거나 나와 관계없는 것이라고 방치하는 상황이 도출되었다.

### ② 주민상호간, 공공부문, 전문가 집단에 대한 신뢰 하락

태안의 유류유출 사고 수습이 진행되는 동안 사고 수습의 종합적 대책을 가지지 못하고, 즉흥적이 대처를 하게 됨으로서 주민들의 공공부문의 신뢰는 하락하였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신뢰 하락은 연쇄적으로 공공부문에 논리를 제공한 것으로 인식되는 전문가 집단을 불신하게 되고, 개별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주민상호간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

### ③ 공동체 회복의 어려움

태안 주민들의 유류유출 사고 이후 현재 상황은 사고에 대한 분노를 지나, 수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넘어 자포자기의 상태에 빠져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개인적으로는 갈등과 신뢰 하락으로 많은 상처를 받았고, 사회적으로는 공동체의 해체 과정을 겪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 해체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모든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조금 시간이 더디더라도 공공부문과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확실한 기준을 마련해 나간다면 하락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사고 수습을 위한 모든 과정은 태안군과 태안 군민만의 문제가 아닌 정부, 충남도, 전문가 집단의 협조가 긴밀히 협조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통해 태안군과 피해민의 협조해서 정확한 기준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 협의해 나가는 과정을 오랜 기간 거쳐야만 공동체와 소멸된 사회자본의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 제5장 결론

## 1. 내용요약

### 1) 공동체와 행복

지난 2년간의 행복연구를 통해서 보면 가족 및 공동체 영역의 행복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것은 아마도 가족과 공동체가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토대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가족과 공동체는 행복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이고, 분리될 수 없는 요소일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행복을 구성하는 공동체 영역의 핵심 지표의 많은 부분은 학계에서 논의되는 사회자본의 개념과 일치한다.

### 2) 공동체와 사회자본

현대사회에서 공동체의 개념은 전통적인 그것과 매우 다르다. 오늘날의 공동체는 제도를 통해 지원되고 전통적인 유대와 현대적인 연대가 조화된 것으로 개념화해야 하는데, 이러한 공동체의 핵심원리는 사회적 연대이고 연대를 구성하는 원인이자 결과인 ‘사회자본’이 가장 핵심적인 원리라 할 수 있다.

사회자본의 기존의 경제자원과 인적자원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자원으로 단일한 실체라기보다는 관계적으로 형성되는 자원이고, 이러한 자원을 통해 거래비용의 감소, 정보력에 의한 영향력의 증대, 공동체 규범의 형성, 공공서비스의 개선과 사회통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는 많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신뢰, 네트워크, 규범, 호혜성과 이 구성요소의 형성을 촉진하는 참여라는 하위요소로서 이루어져 있다고 개념화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는 사회자본을 객관적 지표로 측정하는 지표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3) 충남의 사회자본과 주관적 행복의 객관적 측정

충남의 다른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는 낮은 편이다. 전적으로 믿을 만한 비율이 응답은 20%이하로 나타났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의견이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이와 특정집단에 대한 신뢰를 물어보았을 때, 이웃, 직장동료, 지역공동체에 대한 신뢰는 높은 반면 공무원 및 정치에 대한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지난 1년간 선거에 참여한 비율은 60%대로 전국의 평균을 약간 상회하고 있다. 지역 사회의 정치적 문제에 대한 참여는 매우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의 활동에 참여는 개인 차원의 활동은 비교적 높으나, 전국적 차원의 단체 활동은 비교적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전반적으로 사회의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민은 가족, 동네, 지역, 충남도, 한국에 소속감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규범을 나타내는 공공법규의 준수와 부정부패의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가족과 지역사회의 호혜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행복감, 긍정적 감정을 느끼는 정도, 미래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사회자본, 주관적 행복감과의 상관성을 분석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제3의 자본이라고 불리는 사회자본을 6가지 하위차원으로 구분하여 이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찾아내기 위해 사회인구학적인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신뢰의 영향을 주는 요인은 경제적 요인인 월소득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경제적 요인의 월소득은 사회자본의 모든 하위 차원의 영역(신뢰를 포함하여 소속감, 규범, 호혜성, 참여, 네트워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밖에 연령 요인은 사회자본 중 규범과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자신이 속한 집단이 규범을 잘 지키는 것으로 인지하고, 자신이 사회적 참여에 적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직업과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신이 속한 집단에 소속감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혼인을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사회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가 도시에 거주

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분석은 충남의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충남은 북부권을 중심으로 급격한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이동이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사회관계의 방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연줄망보다는 돈을 매개로 하는 경제적 관계가 가장 중요한 사회관계의 매개요인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충남의 전통적인 사회관계가 산업화되고 도시화된 사회의 새로운 사회관계, 즉 뒤르케임이 이야기 하는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유기적 연대의 관계로 완전히 변화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령, 혼인 여부와 같이 전통적이 관계에 기반한 요인이 미미하지만 사회자본의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된 것으로 보아 충남은 전통적인 사회적 관계가 아직도 사회자본의 형성에 의미 있는 요소로 남아있기도 하다.

따라서 충남은 산업화되고 도시화된 사회관계의 대표적인 지표인 경제적 요인이 중요이기는 하지만 전통적 사회관계가 사회자본의 형성에 의미 있는 요소로 남아 있는 과도기적인 사회로 보인다. 이러한 과도기적인 상태의 충남에서는 사회발전과 사회적 관계 형성의 중요한 기제인 사회자본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사회관계의 장점과 다양성이 증대된 사회관계의 장점을 모두 잘 살릴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다른 측면으로 바라보면 색다른 추론이 가능하다. 경제적 자본을 많이 소유한 사람일수록 사회자본의 풍부하다는 것을 분석의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이는 경제적 자본을 소유한 사람이 사회적 자본까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불평등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일수록 사회자본이 낮은 이중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은 사회자본에서의 소외를 초래하고 이는 다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환원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주관적 행복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아내기 위해 사회인구학적인 변수(모델 2),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사회자본을 독립변수로 하는 분석(모델 3)을 실시하였다. 사회인구학적인 변수 중에 주관적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있는 변수는 경제적 요인(월소득)이었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충남도민의 주관적 행복도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사회자본을 독립변수로 주관적 행복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경제적 요인(월소득)과 사회자본의 6개 하위 요소 중, 신뢰를 제외한 소속감, 규범, 호혜성, 참여, 네트워크 등 5개 변인이 주관적 행복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신뢰는 경제적 요인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보이고 있어 최종분석에서는 그 효과가 사라진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경제적 요인이 설명력이 높은 지표이기 때문에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충남의 경우 전반적으로 사회자본의 축적이 낮고, 경제적 불평등이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사회자본의 축적이 낮고, 이는 주관적 행복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 5) 마을 조사의 결과

충남의 농촌지역인 홍성의 마을 조사 결과를 보면 젊은 층의 이농과 고령화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경제적 빈곤상태에 놓여 있고, 이러한 빈곤은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쳐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 인한 외로움과 고립 상태에 빠져 있다. 그리고 경제적 빈곤은 건강의 문제에도 영향을 미쳐서 질병을 제 때 치료하지 못해 건강을 악화시키고, 이는 다시 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

태안지역의 마을조사에서 드러난 것은, 태안 유류유출 사고의 수습 특히 보상과정에서의 혼란으로 마을 주민들 상호간 갈등이 심화 되었고, 그러한 갈등 상황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태안 유류유출 사고의 수습과정에서의 혼선과 정책의 부재는 주민들 상호간, 공공 부문, 전문가 집단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고, 이러한 하락은 체제를 정비하고 장기적인 소통과정이 없으면 회복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 2. 연구의 함의

### 1) 충남 사회자본과 행복의 측정과 상호 영향 분석의 의미



일반적으로 사회자본은 위 그림과 같은 순환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충남도의 사회자본의 실태를 살펴보면 신뢰, 네트워크, 참여의 항목의 사회자본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드러나서 효과적 사회자본의 선순환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한 악순환의 고리에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의 경우 전반적으로 사회자본의 축적이 낮고, 경제적 불평등이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사회자본의 축적이 낮고, 이는 주관적 행복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충남의 경우 도민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정책을 펼칠 경우 도식적으로 도농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을 펼칠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정책을 펼치고, 또한 지역에 따라 사회자본의 축적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회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2) 충남의 농어촌 마을 조사가 주는 의미

농촌지역(홍성) 마을 조사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① 경제적 빈곤

개인적 차원의 단순한 빈곤은 농촌지역의 정서 상(상부상조하여 농사를 지어주고, 상황이 어려운 독거노인은 이장, 청년회, 부녀회 등에서 간간히 돌봐 줄 수 있음) 견딜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빈곤이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외부 경제적 충격과 결합하는 경우 마을 주민들은 곤경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IMF 이후 자식들의 경제적 어려움 직면, 연대보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 상황에 처했을 때, 며느리의 죽음으로 아들의 손자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 빠진 경우). 이러한 외부적 상황과 결합된 경제적 빈곤은 주민들의 사회적 관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② 사회적 관계의 단절: 노령화, 외로움과 고립

세 마을 모두 시범 사업 이전의 마을 단위의 교류가 드물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세 마을 모두 최근에는 없지만 이농에 따른 빈가구가 많고, 자식들이 외지에 살게 되고 노령화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웃 간의 교류가 줄어들게 되었다. 따라서 마을이 노령화되고, 교류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노년층을 중심으로 외로움과 고립 상태에 놓이고, 사회적 지지망을 갖지 못할 경우가 많다.

### ③ 사회적 관계의 활성화를 통한 공동체 회복의 가능성

따라서 세 마을 모두 시범 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높고, 시범사업으로 마을의 활력을 찾았다고 이야기 한다. 세 마을 모두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이나 인적자원 및 네트워크를 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여건이 형성되면 사회관계의 회복과 정서적 교감의 장의 마련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희망과 정책적 지원이 결합된다고 한다면 소외지역의 사회자본 확충이 가능할 것이다.

어촌지역(태안)의 현지 조사가 주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 ① 주민 상호간의 갈등의 심화

유류유출 사고 이후 긴급 생활자금의 지원 및 1, 2차 보상을 신청하는 과정에서의 혼란으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개인차원의 욕심도 있지만,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보상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주민들은 서로를 불신하게 되었고, 공동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거나 나와 관계없는 것이라고 방치하는 상황이 도출되었다.

### ② 주민상호간, 공공부문, 전문가 집단에 대한 신뢰 하락

태안의 유류유출 사고 수습이 진행되는 동안 사고 수습의 종합적 대책을 가지지 못하고, 즉흥적이 대처를 하게 됨으로서 주민들의 공공부문의 신뢰는 하락하였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신뢰 하락은 연쇄적으로 공공부문에 논리를 제공한 것으로 인식되는 전문가 집단을 불신하게 되고, 개별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주민상호간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

### ③ 공동체 회복의 어려움

태안 주민들의 유류유출 사고 이후 현재 상황은 사고에 대한 분노를 지나, 수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넘어 자포자기의 상태에 빠져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개인적으로는 갈등과 신뢰 하락으로 많은 상처를 받았고, 사회적으로는 공동체의 해체 과정을 겪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 해체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모든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조금 시간이 더디더라도 공공부문과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확실한 기준을 마련해 나간다면 하락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사고 수습을 위한 모든 과정은 태안군과 태안 군민만의 문제가 아닌 정부, 충남도, 전문가 집단의 협조가 긴밀히 협조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통해 태안군과 피해민의 협조해서 정확한 기준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 협의해 나가는 과정을 오랜 기간 거쳐야만 공동체와 소멸된 사회자본의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 3) 정책적 제안

### 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 복지정책의 수립과 시행

경제적 빈곤을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복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차원의 복지정책은 재정적 어려움 등의 문제로 인해 중앙정부의 사회보장 급여

의 조사와 시행, 그리고 중앙정부 매칭의 사회서비스 시행의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빈곤의 여러 가지 빈곤요인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것이 많고, 그것이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재정적으로 부족한 경우라도 지역적 자원(정책적 자원과 민간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사용하는 지역사회복지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계획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단순히 수행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능동적 복지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 ② 사회자본의 증진을 위한 융합적 정책의 시행

충남에서는 도민들의 사회자본의 증진과 지역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 많은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것을 확대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시민사회의 역량 증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 정책,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사랑 행복마을’ 정책, ‘희망마을 만들기’ 정책 등이다.

이러한 것들은 개별적으로는 매우 훌륭한 정책적 실험으로 보여 지지만, 예산의 문제 등으로 충남의 전역으로 확산되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서로의 강점을 살려 다른 정책들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면, 그 시너지 효과로 인해 개별적인 정책도 살고 전체적으로는 충남의 사회자본을 축적해서 도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정책의 측면에서 개별정책의 효과만을 생각하지 말고, 충남의 전체적 차원에서 효과성을 고려하여 정책적 자원을 배분하고 상호 협력한다면 더 큰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참고 문헌

- 고경훈 외(2012).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자본 측정 및 증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고승희 외. 2012. 충남도민의 행복지표 개발과 행복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충남발전연구원.
- 국토연구원, 2012,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재해 취약성 분석 및 도시방재방안”, 국토정책 브리프 제388호.
- 김경석, 2011, “3S 도로 조성방안”, 사람 중심의 도시형 마을만들기 전략과제 워크숍 자료집, 충남발전연구원.
- 김명소·한영석, 2006. “한국인의 행복지수 공식 개발”. 「조사연구」 7(2): 1-38
- 김승권 외 3인, 2008, 한국인의 행복 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장영식·조승식·차명숙, 2008. “한국인의 행복결정 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신영외 1인, 2006, 한국 청소년 행복·역량지수 개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운태, 2010. “행복지수와 사회문화적 분석”. 「문화경제연구」 13(1):23-45
- 김지경·송은경. 2004.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여부 및 교류액의 결정요인: 따로사는 부모가구와 자녀가구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22(5):75-89.
- 김혜영·변화순 윤희식. 2008. 여성의 이혼과 빈곤: 직업과 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0(2), pp.37-63.
- 박대식·마상진·신은정. 2005. 도시와농촌의삶의질지수측정방안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성환, 2009. “근대사회의행복논리”. <행복사회와문화정책의방향>
- 박순미(2004), “조직의 사회적자본이 새로운 지적자본 창출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학위논문
- 박혜경·고미선·정승화·국미애. 2004. 인천시민의가족실태및가족가치관조사. 인천발전연구원.

-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2), 서울시의 조직신뢰 향상방안
- 서은국, 2012.“행복의심리학적이해”. <충남발전연구원 행복연구회 내부발표자료>
- 서은국·구재선. 2011. 단축형 행복 척도(COMOSWB)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 25(1), pp96-114.
- 서은국·구재선·이동귀·정태연·최인철, 2010. “한국인의 행복지수와 그 의미”.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성지미·안주엽.2006.“중고령자취업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6(1):39-74.
- 소진광(2006),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서울: 박영사
- 심수진·이희길.2009.사회조사항목개발.통계청.
- 양현미·심광현·박건희,2007. 「문화의 사회적 가치:행복연구의 정책적 함의를중심으로」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오용준·윤갑식, 2012,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도시계획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지 제13권 제4호.
- 요하네스 발라허지움(박정미 옮김),2011. 「경제학이 깔고 앉은 행복」.대림북스
- 이민아. 2010.“결혼상태에따른노인의우울도와성차.”한국사회학44(4):32-62.
- 이성규, 2006, 시민행복지수 측정을 위한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이수철외(2013). 충청남도 자살 실태분석 및 예방정책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 이운석. 2010. “취업한기혼남녀의일과가족전이:부정적전이와긍정적전이의통합적접근.”
- 이운석.2011.“부모의성인자녀에대한경제적지원관련태도연구.”한국인구학34(3):1-30.
- 이희길, 2012.“사회발전및웰빙측정”.<충남발전연구원행복연구회내부발표자료>
- 이희길·심수진, 2009. 「삶의 질과 사회지표 체계 연구」. 통계개발원
- 임영진·고영건·신희천·조용래, 2010. “한국인의 정신건강”.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 전상인, 2009. “행복의공간사회학시론”. <행복사회와문화정책의방향>
- 조지프 스티글리츠·아마르티아 센·장 폴 피투시 지음(박형준 옮김), 2011. 「GDP는 틀렸다」 .  
동녘
- 최종렬. 2004. “신뢰와 호혜성의 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자본”, 한국사회학 38(6)
- 최항섭, 2009. “미디어와행복”. <행복사회와문화정책의방향>
- 통계개발원, 2011, 국민 삶의 질 측정 2011.

통계청. 2006.2006년 사회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통계청. 2008.2008년 사회조사보고서. 통계청.  
통계청. 2010.2010년 사회조사보고서. 통계청.  
통계청. 2011년 전국인구주택총조사전수조사 보도자료. 통계청.  
한국인구학회. 2011. "2010인구주택총조사전구결과:심층분석을위한연구." 통계청.  
황명진 · 심수진, 2008. "한국인의 행복지수 개발". 「조사연구」 9(3): 93-117

- A. O. Hirschman(1984), *Getting Ahead Collectively: Grassroots Experiences in Latin America*, NY: Pergamon Press.
- Alan B. Krueger\*, David A. Schkade (2008). The reliability of subjective well-being measur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2: 1833-1845
- Berger-Schmitt R., and Noll, H., 2000, *Conceptual Framework and Structure of a European System of Social Indicators*. EU Reporting Working Paper No. 9, Centre for Survey Research and Methodology, Mannheim.
- Blau, P. M. (1964), *Exchange and Power in Social Life*, New York: John Wiley & Sons.
- Boarini, R., M. Comola, C., Smith, R. Manchin, and F. Keulenaer(2012), "What Makes for a Better Life?: The Determinants of Subjective Well-Being in OECD Countries - Evidence from the Gallup World Poll," *OECD Statistics Working Papers*
- Burt, R. S. (1997), *The Contingent Value of Social Capital*,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 42
- Clark, A. E. and A. J. Oswald(1994), "Subjective well-being and unemployment," *Economic Journal*, 104, pp. 648-659
- Coontz, S. (1997). *The Way We Really Are*. Basic Books.
- Cummins, R.A. (2000), Objective and subjective quality of life: an interactive model, *Social Indicators Research*, 42(1), 55-72.
- Delors, J., Mufti, I., Amagi, I., Carneiro, R., Chung, F., Geremek, B., et al. (1996). *Learning: The treasure within*. Report to UNESCO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Education for the 21st century. Paris, France: UNESCO Publishing.

- Diener, E, RE Lucas, U Schimmack and JF Helliwell (2009), *Wellbeing for Public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 Diener, Ed and Suh, Eunkook M. (1997). "Measuring quality of life: Economic, social, and subjective indicators." *Social Indicators Research* 40:189-216.
- Diener, Ed and Suh, Eunkook M. (1997). "Measuring quality of life: Economic, social, and subjective indicators." *Social Indicators Research* 40:189-216.
- Esping-Anderson(2000), "Social Indicator and Welfare Mointoring : Social Policy and Development Programme",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Development.
- EU, 2006, 주요도시 행복도 및 경쟁력 비교연구 프로젝트.
- Jane Jacobs 1961,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Second Edition, Random House, New York.
- Keizer, M. and L.J.G. van der Maesen(2003), "Social Quality and the Conditional Factor of Socio-Economic Security," working paper
- Lucas, R., A. Clark, Y. Georgellis, and E. Diener(2004), "Unemployment Alters the Set Point for Life Satisfaction," *Psychological Science*, 15(1), pp. 8-13
- Noll, Heinz-Hervert(2004), "Social Indicators and Quality of Life Research: Background, Achievements and Current Trends", Genov, Nicolai Ed. *Advances in Sociological Knowledge Over Half a Century*. Wiesbaden: VS Verlag fur Sozialwissenschaften.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1976 *Measuring Social Wellbeing: a progress report on the development of social indicators*, Paris.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1982 *The OECD List of Social Indicators*, Paris.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1986 *Living Conditions in OECD Countries: A Compendium of Social Indicators*, Paris.
-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ival of Community*. New York: Touchstone Books.
- S. Ghoshal & P. Moran(1996). Bad for Practice: A Critique of the Transaction Cost Theory, *Academy of Managment Review*, Vol. 21.

- Schneider, M. (1976). The "quality of life" and social indicators research.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6, 297-305.
- Sen, Amartya. (1985). Well-being, Agency and Freedom: the Dewey Lectures., *Journal of Philosophy*, 82(4), 169-221.
- Stiglitz, Joseph E., Amartya Sen & Jean-Paul Fitoussi(2009), "Report by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 Trewin, D.(2001). *Measuring Wellbeing*,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 U. S. Department of Housing & Urban Development Office of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 1996, 『Creating Defensible Space by Oscar Newman』 , US.
- Winkelmann, L. and R. Winkelmann(1998), "Why Are the Unemployed So Unhappy? Evidence from Panel Data," *Economica*, 65, pp. 1-15
- Zucker, L. G. Darby, M. R. Brewer, M. B. & Peng. Y. (1996), *Collaboration Structures and Information Dilemmas in Biotechnology: Organization Boundaries as Trust Production*, Thousand Oaks, CA: Sage

## 충남 도민의 사회자본과 행복도 조사

충남발전연구원은 충청남도과 15개 시군의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기관입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은 충남도민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서로 믿고 협력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충남도민의 사회생활의 모습을 살펴보고, 충남도민들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는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귀하께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생활에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는 충청남도의 지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및 정책, 그리고 충남도민들의 행복증진을 위한 정책 자료를 만드는데 중요한 자료도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오직 학문적·정책적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귀하가 답변한 설문내용 및 개인 신상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절대적으로 보장됩니다.

2014년 5월

(재)충남발전연구원

\* 본 조사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십시오

조사기관 : 충남발전연구원

(담당 이수철 책임연구원: 041-840-1235 sclee@cdi.re.kr )

조사대행기관 : 대전리서치(담당 왕소연 실장:)

## I . 주변 사람들에 대한 생각

1. 먼저 귀하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을 만하다      2) 사람들을 믿을 때 약간 조심스럽다  
3) 상황에 따라 다르다                      4)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

2.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항목	전혀 신뢰하지 않음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비교적 신뢰	매우 신뢰
1) 주변의 이웃	1	2	3	4	5
2) 각종 모임이나 직장 동료들	1	2	3	4	5
3) 주로 이용하시는 상점, 가게 주인이나 점원들	1	2	3	4	5
4) 지역의 파출소 및 경찰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1	2	3	4	5
5) 중앙정부의 공무원들	1	2	3	4	5
6) 국회의원과 같은 정치인들	1	2	3	4	5

## II . 지난 1년간 참여하신 사회활동과 네트워크

3. 최근 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때 투표에 참여하였습니까?

- 1) 모두 참여했다      2) 참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3)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4. 귀하가 지난 1년간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1)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원서/탄원서 제출 또는 서명운동	1	2	3
2) 정당의 전당대회 등과 같은 정치적 모임과 행사	1	2	3
3) 시가행진, 시위(촛불시위) 등과 같은 활동	1	2	3
4) 지역단체의 위원이나 대표(주민자치위원회, 통반장, 이장 등) 활동	1	2	3

5. 귀하께서는 지난 1년 다음과 같은 사회단체 활동에 참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항 목	있다	없다
1) 자원봉사단체(전국재해구호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적십자사 등)	1	2
2) 스포츠, 문화예술, 취미관련 동호회(각종 여가문화 모임)	1	2
3) 각종 친목회 및 계모임	1	2
4)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1	2
5) 전우회, 재향군인회	1	2
6) 자녀 학교모임, 학부모회	1	2
7) 직능단체, 협회(상인회, 공제조합)	1	2
8) 전국규모의 국민운동단체(새마을,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1	2
9) 전국규모의 시민사회단체(환경연합, 경실련, YMCA, 참여연대 등)	1	2
10) 종교관련 활동(봉사모임, 성경모임 등)	1	2
11) 정치 조직, 정당	1	2
12) 노동조합	1	2
13) 지역풀뿌리조직(지역환경 관련 모임, 공동육아, 생협, 지역시민단체)	1	2
14) 기타 ( _____ )	1	2

6. 귀하는 마을회의(반상회, 마을 총회)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십니까?

- 1)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 2) 참석하지 않을 때가 많다
- 3) 절반정도 참석 한다
- 4) 주로 참석 한다
- 5)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곤 매번 참석 한다

7. 귀하는 지난 1년간 다음과 같은 자원봉사활동과 에 얼마나 참여하셨습니다?

속성	전혀 없다	1~2회	수차례 (월 1회 미만)	매월 1회 이상	매주 한번 이상
1. 사회복지와 관련된 봉사활동(노인, 저소득층 등)	1	2	3	4	5
2. 지역사회 주민 봉사활동(문화, 학교봉사)	1	2	3	4	5
3. 지난 1년간 참여했던 모든 자원봉사활동	1	2	3	4	5

8. 귀하는 지난 1년간 다음과 같은 활동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셨습니다?

속성	전혀 없다	1~2회	수차례 (월 1회 미만)	매월 1회 이상	매주 한번 이상
1. 지역사회 행사(지역축제, 음악회 등)	1	2	3	4	5
2. 단체 및 클럽 모임(취미, 사회단체 등)	1	2	3	4	5
3. 친구들과의 친목 및 오락/취미/여가 모임	1	2	3	4	5
4. 동거하고 있지 않은 가족 및 친척 모임	1	2	3	4	5
5. 직장 동료와의 업무 이외의 사교 모임	1	2	3	4	5

### Ⅲ . 호혜성 및 규범

9. 귀하가 다음의 의견들에 대하여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속성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가족은 나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	1	2	3	4	5
2. 우리 동네에 산다는 것은 나에게 중요한 사실이다	1	2	3	4	5
3. 우리 시군(홍성, 태안, 아산)에 사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1	2	3	4	5
4. 충청남도에서 사는 것은 나에게 중요한 사실이다.	1	2	3	4	5
5.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사실은 나에게 중요하다.	1	2	3	4	5

10. 귀하는 다음의 생각들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속성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지역 사람들은 공공 법규를 잘 지키는 편이다	1	2	3	4	5
2. 우리사회는 전반적으로 공공 법규를 잘 지키는 편이다	1	2	3	4	5
3. 지역사회에서의 부정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다.	1	2	3	4	5
4. 우리사회 전체적으로 부정부패는 심각하다	1	2	3	4	5
3. 부정부패는 척결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눈감아 주어야 할 때도 있다.	1	2	3	4	5

11. 귀하가 어려움(경제적 문제, 정신적 문제)에 처했을 때, 즉시 연락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친구, 이웃사람, 친척 등)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 \_\_\_\_\_ 명)

12. 귀하는 다음과 같은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속성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충분하다	1	2	3	4	5
2. 나는 가족 관계에 만족 한다	1	2	3	4	5
3. 우리 가족은 서로 갈등이 없는 편이다	1	2	3	4	5
4. 우리 마을 사람들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	2	3	4	5
5. 나는 사회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	2	3	4	5

13. 귀하는 다음과 같은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속성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삶에 만족한다.	1	2	3	4	5
2. 나는 부정적 감정(슬픔, 불안 등)보다 긍정적 감정(행복, 즐거움 등)을 많이 느낀다	1	2	3	4	5
3. 나는 지금까지보다 앞으로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 IV. 일반사항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1) 남자 2)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만

세

3.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떻습니까?

- 1) 기혼 2) 미혼 3) 이혼 4) 사별

4.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중퇴, 재학도 포함)

- 1) 초등학교 졸업이하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대학교 졸업 5) 대학원 이상

5.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 1) 불교 2) 개신교 3) 천주교  
4) 기타 ( ) 5) 없음

6. 귀하의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 1) 전문직/자유직 2) 일반사무직/ 관리직 3) 판매직/서비스직  
4) 생산직/기술직 5) 농림/어업/축산업 6) 학생  
7) 가정주부 8) 무직/은퇴 9) 군인  
10) 기타 ( )



■ 집 필 자 ■

연구책임 · 고승희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수철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공동연구 · 최병학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략연구 2014-13 · 충남의 지역공동체와 행복 -충남의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글쓴이 · 고승희, 이수철, 최병학

발행자 · 강현수 /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인쇄 · 2014년 8월 31일 / 발행 · 2014년 8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14-140)

전화 · 041-840-1235(행정복지연구부)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239

ISBN · 978-89-6124-263-9 03350

<http://www.cdi.re.kr>

© 2014. 충남발전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